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igital Commons @ Fuller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
학 박사 졸업 논문

Korean Studies Center

3-20-2008

이민교회를 위한 포용목회 리더십: 세계비전교회를 중심으로

Jae Youn Kim 김재연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

Recommended Citation

김재연, "이민교회를 위한 포용목회 리더십: 세계비전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08.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PASTORAL LEADERSHIP OF EMBRACING FOR KOREAN IMMIGRANT CHURCH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WORLD VISION CHURCH

written by

JAE YOUN KIM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Seyoon Kim

Jin Ki Hwang

March 20, 2008

**PASTORAL LEADERSHIP OF EMBRACING FOR
KOREAN IMMIGRANT CHURCH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WORLD VISION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JAE YOUN KIM

MARCH 2008

이민교회를 위한 포용목회 리더십:
세계비전교회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김세윤 교수

김재연

2008년 3월

AbstractAbstract

A Study of the Embracing Pastoral Leadership for Korean Immigrant Churches:
An Application to World Vision Church

Jae Youn Kim

Doctor of Ministry

2008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primary concern of this study is to find an alternative pastoral leadership in Korean immigrant churches. This study first addresses problematic situations with a religio-sociological observation of Korean immigrant churches. Particularly, it focuses on the immigrant context of Korean churches that experienced various difficulties and conflicts because of church members' socio-economic status, generational gap, gender difference, and diversities in the life of faith.

This study draws on a typological discussion on various kinds of church leadership in Korean immigrant churches and points out the embracing pastoral leadership as a way of fashioning a new leadership model for Korean immigrant churches. This study discusses how it is possible to utilize the embracing pastoral leadership model in Korean immigrant churches, especially examining basic principles of Cell-based ministry.

Theological discussion is centered on the Biblical narratives, which depict the embracing nature of God, the embracing leadership of the biblical people in the Old Testament, and the embracing ministry of Jesus and Paul. In addition, Miroslav Volf's theological ideas about "the theology of embrace" are suggested as a theological foundation for the model of the embracing church leadership.

Integrating these biblical interpretations and theological discussions, this study suggests the embracing pastoral leadership for the Korean immigrant church that is grounded in ministerial experiences at World Vision Church. These experiences can be a meaningful experiment and an example for applying the embracing

pastoral leadership in Korean immigrant churches. This study provides a possibility and hope of embracing differences and conflicts in the Korean church context.

Theological Mentor: Seyoon Kim, Ph.D.
Jin Ki Hwang, Ph.D.

감사의 글

부족하고 미흡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여기까지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임을 고백했던 사도바울의 마음이 새삼 가슴에 새겨집니다.

학문연구와 여러 가지 학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지도교수로 수고해 주신 김세운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논문이지만 끝까지 읽어 주시고, 작은 부분 하나까지 쉽게 넘기지 않으시고 세밀하게 지도해 주신 교수님의 학자적인 성품과 열정이 있었기에 미흡한 중에도 이 논문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목회자로서의 길을 걸어오며 있어서 항상 저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사랑과 헌신으로 함께 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의 변함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헌신이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한 길을 걸어 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논문에 기초가 된 세계비전교회와 여러 동역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척의 시기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열정과 사랑의 수고로 함께 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세계비전교회가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한 생을 살아가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동역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08년 3월 김재연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동기와 방법	1
제 3 절 논문의 구성과 주제	3
제 2 장 한인이민교회의 상황적 분석	4
제 1 절 한인 이민사회에서 한인교회의 역할과 중요성	4
제 2 절 이민교회 구성원들 간의 사회 문화적 차이점	5
1. 이민교회에 대한 종교사회학적 연구	5
2. 이민 시기에 따른 특성 개관	8
가. 1960년대 - 1970년대	8
나. 1980년대 - 1990년대	10
다. 2000년 - 현재	11
제 3 절 한인 이민교회의 문제점: 대립과 분열	12
1.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삶의 격차	13
2. 세대간의 격차	13
3. 성별의 차이	15
4. 신앙적 노선의 차이	16
5. 지역감정의 차이	16
6. 정치관의 차이	17
제 3 장 한인이민교회 지도력의 유형론 분석	19
제 1 절 카리스마적 리더십	21
제 2 절 민주적 리더십	23
제 3 절 포용적 리더십	25

1. 다양성의 인정	29
2. 그리스도의 정신으로서의 화합	31
3.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각한 공동체의 비전 제시	33
제 4 장 포용목회의 성서적 신학적 고찰	37
제 1 절 구약성서 속에 나타난 포용적 리더십	37
1. 하나님의 포용적 속성	37
2. 포용적 삶의 모습을 보여준 구약성서의 인물	38
제 2 절 신약성서 속에 나타난 포용적 리더십	40
1. 예수님의 포용적 리더십	40
2. 바울의 포용적 리더십	43
제 3 절 포용의 신학	47
1. 포용의 드라마	48
가. 타인을 향한 개방	48
나. 기다림	49
다. 두 팔로 포용하기	50
라. 다시 개방하기	50
2. 성공적인 포용을 이루어 내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들	51
제 5 장 포용목회의 한인이민교회에서의 적용 (세계비전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54
제 1 절 세계비전교회의 위치와 정황	54
제 2 절 세계비전교회의 역사와 성장	55
1. 태동기(1987년 1월 - 1988년 3월)	55
2. 정착기(1988년 3월 - 1992년 10월)	56
3. 성숙기(1992년 11월 - 2002년 10월)	56
4. 제2 도약기(2002년 11월 - Present)	57
제 3 절 세계비전교회안의 포용목회	58
1. 장로부부 세미나와 수련회	58

2. 선배 교역자들을 섬김	63
3. 영어목회의 창설, EM비전새벽기도회	64
4. 레인보우 선교회	66
5. 새가족 환영회	68
제 4 절 포용목회에 대한 평가와 제언	69
1. 포용목회의 발전적 성장을 위한 계획과 제언	69
2. 포용목회를 이루고자 하는 목회자를 위한 제언	75
가. 하나님의 사랑	75
나. 예수님의 섬김의 도	77
다. 부르심	78
라. 기도	80
제 6 장 결론	82
참고문헌	85
Vita	8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본 논문에서는 이민사회에서의 보다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이민목회를 위해 포용적 리더십을 토대로 한 포용목회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한인 이민교회들은 인종적으로는 단일한 성격을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차이점들을 지니고 있다. 이민자들은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교육적, 직업적, 그리고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들이 공존하는 이민사회에서 이민교회의 목회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목회자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민자들 각각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리더십은 한인 이민교회의 상황에 절실히 필요한 리더십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동기와 방법

분열과 갈등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한인 이민교회의 현실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교회공동체를 회복하는 한 대안인 포용목회에 대한 필자의 관심은 3년 반 동안 부교역자로 시무했던 나성한인교회의 목회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수많은 이민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했던 나성한인교회 담임목사의 목회는 필자의 목회철학과 리더십을 정립하는데 있어 큰 영향을 끼쳤다. 고단한 삶 속에서 많은 상처를 입은 이민자들이 치유 받고 회복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의 연약함을 감싸 안는 목회자의 포용적 리더십이 한인 이민교회에 꼭 필요한 리더십을 확신하게 되었다.

필자는 이 경험과 배움을 필자의 현 목회지인 세계비전교회의 목회에 그대로 적용하였다. 포용목회의 적용과 실천을 위해 힘쓰는 동안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며, 많은 한인 이민자들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과 위로를 경험했다. 하지만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조직 관리와 더 세밀하고 적극적인 목회적 돌봄이 요청되기 시작했다. 이 요청에 대한 필자는 포용목회의 조직적인 구성을 위해 각 지체별 모임 (Small Group)을 만들었다. 비슷한 연령층이 함께 할 수 있는 선교회를 조직하였고, 지역별로 구역모임을 활성화 시켰으며, 다양한 교회사역의 영역에 따라 사역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모임은 찬양과 증보기도, 그리고 말씀 나눔과 묵상을 모임의 기본으로 하고, 교회 공동체의 사안에 따라 의견을 나누고 논의하는 구조를 가지고 운영되었다.

이러한 소그룹 모임은 교인들을 더 깊은 교제와 나눔의 자리로 인도했다. 여러 모임들을 통한 만남의 기회는 서로 다른 경험과 배경을 가진 교인들이 비록 간접적이지만 다른 사람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고, 자신의 삶도 다른 이들에게 개방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이 모임들은 교인들에게 자신들과 다른 이들에 대한 이해를 보다 넓히는 계기를 제공했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고 존중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 모임 자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건강한 부모 밑에서 건강한 자녀가 양육되듯이, 담임 목회자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담임 목회자의 리더십과 여러 모임들이 조화를 이룰 때, 외롭고 힘든 이민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목회자와의 만남과 모임 속에서의 만남 속에서 경험하는 사랑과 포용을 통해 큰 안식을 제공받게 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포용하시는 분임을 증거한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 든든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포용하셨다(창 3:21). 자기 동생을 살해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 가인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가 말씀하셨다(창 4:15).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포용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여 포용목회를 실천하셨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병든 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보셨다. 고통을 당한 자, 낙심한 자, 억눌린 자, 지극히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시며 위로하시고 고쳐주셨으며 새 삶의 기운을 복돋워 주셨다(눅 4:18). 또한 자신을 세 번

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포용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어 그로 하여금 초대교회의 사도로 쓰임 받게 하셨다.

본 논문을 통해 필자는 성경에 나타난 포용의 역사들을 토대로 포용목회의 필요성과 그 성서적, 신학적 토대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세계비전교회에서 이민자들을 위한 포용목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해 나누고자 한다.

제 3 절 논문의 구성

2장에서는 이민사회 속에서 교회의 역할과 중요성과 이민시기에 따른 이민교회 구성원들 간의 사회 문화적 차이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화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이민교회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3장에서는 그간 이민교회를 이끌어 왔던 이민교회의 리더십의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고, 4장에서는 포용목회의 신학적 성서적 기초에 대한 논의를 신, 구약 성서 속에 나타난 증언들을 토대로 기술할 것이다. 5장에서는 포용목회의 구체적인 고민과 적용의 사례로서 본인이 20여 년 동안 목회하고 있는 세계비전교회의 목회에 대해 고찰하여 보고, 포용목회에 대한 평가와 미래의 한인교회들을 위한 대안적 리더십으로서의 포용목회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위의 모든 논의들을 정리하고 결론을 맺음으로 본 논문을 끝맺을 것이다.

제 2 장

한인 이민교회의 상황적 분석

제 1 절 한인 이민사회에서 한인교회의 역할과 중요성

한인 이민사회 속에서 교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백여 년의 역사 속에서 한인교회는 단순히 기독교인들의 예배의 장소라는 개념을 넘어서 한인 이민사회와 이민자들의 삶의 중심에서 핵심적인 센터의 기능을 담당해 왔다. 허원무와 김광정은 한인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교회출석은 삶의 한 방법(a way of life)이 되었다고 말한다.¹⁾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인 이민자들 중 약 65-70%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이들 중 약 1/4 정도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약 80-90% 정도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²⁾ 김계호는 한인 이민교회가 수행하고 있는 종교외적 기능들이 다양하게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민교회는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또한 심리적으로 이민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은 미국의 이민사를 통해 뚜렷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³⁾

1) Won Moo Hurh and Kwang Chung Kim, "Religious Participation: Ethnic Roles of the Korean Church," in *Korean Immigrants in America: A Structural Analysis of Ethnic Confinement and Adhesive Adaptation* (London and Toronto: Associated University Presse, 1984), 130.

2) Ibid.

3) 김계호,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미주 한인 이민교회: 회고와 전망," 김찬희 편, *미주한인감리교회 백년사 제2권* (Upland, CA: 미주 한인감리교회 백주년 출판위원회, 미주 한인감리교회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협의회, 연합 감리교회출판사, 2003), 540. 김계호에 따르면 한인 이민교회가 수행하고 있는 종교외적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적 문화와 가치체계, 언어와 관습 등이 보전되는 한인 센터, 2) 후세들에게 한국역사, 문화, 언어 등을 가르치고 민족적 정체성을 신어주는 교육기관, 3) 사회사업 기관, 4) 직위 박탈감이 많은 이민자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갖게 됨으로 박탈감을 상쇄 시켜주는 기능, 5) 이민생활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외로움을 달래주는 가족과 같은 일차적 집단, 6) 인종차별과 적대감을 경험하는 사회 속에서 피난처 혹은

이와 같이 이민교회는 한인 이민자들에게 쉼터이자 한인으로서의 공동체의식을 복돋워주는 장소였으며 또한 한국문화를 보전하고 후세에 교육하는 중심기관이기도 했다. 이민교회는 이러한 이민자들의 삶을 돕기 위한 각종 사회적인 지원과 도움에 더하여 낯선 이국땅에서 사회, 경제적, 인종적 차별 속에서 분투하는 이민자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말썸으로 치유하며 새 삶의 기운을 복돋는 생명의 공동체였고, 그 결속력과 힘은 한인사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원동력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포용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포용목회는 이민자들에게 삶의 상처로부터 치유와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을 주었던 이민교회의 역할을 배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한인교회의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그 대안들에 대한 논의는 21세기 한인교회와 목회자뿐만 아니라 미주한인사회가 그 미래를 진단하고 설계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제 2 절 한인 이민교회 구성원들 간의 사회 문화적 차이점

1. 한인 이민교회에 대한 종교사회학적 연구

1965년에 동양인들의 이민을 금지하였던 이민법이 개정되고 난 후 본격적인 이민이 시작되었고 그에 따라 한인 이민교회들도 급격한 성장의 시기를 맞게 된다. 1970년까지 70개 미만이었던 한인교회의 수가 현재 3,000개에 이르는 사실은 그 성장이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⁴⁾ 지난 이민 교회 역사를 돌이켜 보면 미주 한인들의 사회 문화적 삶의 전개과정을 통하여 교회의 성격과 기능, 교회가 한인 이민자들에게 주는 의미 또한 변화해 온 것을 볼 수 있다.

김계호는 1965년 이민법 개정이후의 한인 이민교회의 특징으로 사사화(Privatization) 경향성, 종파화(Sectarianization) 경향성, 그리고 증대된 종교성을 들고 있다.⁵⁾ 먼저 사사화 경향성에 대하여 김계호는 1968년 본격적인 이민이 시작된 이후의 이민교회의 가장 큰 특징으로 교회의 거의 모든 에너지가 이민자들의 사회 문화적

영적인 오아시스로서의 기능, 7) 인종/민속기관 (racial-ethnic institution)

4) Ibid., 529

5) Ibid., 530.

요구에 부응하는데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민법 개정 이전의 한인 이민교회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에 반하여 후기 한인 이민교회들은 사회, 정치적 관심과 활동보다는 새로운 한인 이민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데 교회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사용하여 왔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민자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생활과 적응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필요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을 얻고자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민자들의 실제적인 요구나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로 대두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교회는 종교적인 조직임과 동시에 사회적, 문화적, 민족적 조직으로 이미 이민사회 속에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민자들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구조 속에 적응하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그에 따른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도움을 받고자 교회를 선택하고 있다. 이민자들이 교회의 구성원들, 특히 목회자들에게 이러한 삶의 실제적인 어려움에 대하여 도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민교회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교회의 목회와 리더십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민자들에 한인교회에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민병갑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한국에서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많은 교포들이 미국에서 한인교회에 나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교포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감당하고 있어서 누구든지 하나의 한인 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면 이곳에서 미국생활에 적응해 나가기 힘들다는 사실이다.⁶⁾

교회의 구성원들과 목회자들은 이러한 요구들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게 되었고, 이렇게 이민자들을 돕는 일들은 교회의 양적인 성장과 직접적, 간접적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한인 이민교회 안에서 사사화의 경향성은 점점 증대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회의 역할과 성격의 변화는 이민자들의 현실적 삶의 문제들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민교회의 특징으로 지적된 종파화의 경향성 또한 이민자들의 삶의 현실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민교회는 이민자들의 현실적 필요를 충족시켜 줌

6) 민병갑, *미국속의 한국인* (서울: 유림문화사, 1991), 260.

으로써 사회 문화적 또한 민족적 공동체로서 교회의 내적 성장과 기능들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그 테두리를 넘어서는 사회 전반의 일들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한인 이민교회들은 사회구성의 일부분으로 상호 기능하기 보다는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고립, 퇴행하는 종파적 특성을 띄게 된 것이다. 김계호는 이에 대해 “이민교회는 미국 주류사회로부터 단절되거나 퇴행되어 게토화(ghettorization) 되어있다”고 지적한다.⁷⁾ 이민자로서 어쩔 수 없이 경험해야 하는 전체사회로부터의 소속감의 부재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 긴장, 경제적 사회적 위치의 변화 등은 한인 이민자들로 하여금 민족적 동질성과 편안함 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의 필요를 야기 했고 이는 한인 이민교회의 종파적 경향을 강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특징인 증대된 종교성은 두 번째 특징으로 논의된 종파화의 경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이민자들의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민자들의 고단하고 불안정한 삶의 현실은 그들로 하여금 절대자의 도움을 요청토록 하거나 종교적 삶으로 귀의케 한다. 허원무와 김광정의 연구에 따르면 한인 이민자들 중 약 65-70%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이들의 약 1/4정도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고, 약 80-90%정도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 집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⁸⁾ 김계호는 미주 한인 기독교인들은 경험적(experiential), 의례적(ritualistic), 이념적(ideological) 그리고 결과적(consequential) 차원에서 높은 종교성을 골고루 나타내고 있다고 말한다.⁹⁾ 총 692명의 조사 응답자 중 73.2%가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하며, 57.7%가 매일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92.7%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의 집회에 출석한다고 응답했다. 종교적 체험에 대해서 61.8%의 응답자가 체험의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91.0%의 응답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계시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80.9%가 교회생활이 삶의 만족을 얻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고 밝히고 있다.¹⁰⁾

위의 결과들은 이민생활에서 종교적인 생활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해 주

7) 민병갑, *미국속의 한국인*, 533.

8) Won Moo Hurh, and Kwnag Chung Kim, "Religious Participation: Ethnic Roles of the Korean Church," 130.

9) 김계호,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미주 한인 이민교회," 534.

10) Ibid.

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인교회들은 이민자들의 현실적인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치유와 회복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종교성의 증대라는 측면은 한인교회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며 바람직한 현상이면서 동시에 도전이기도 하다. 각각의 다른 필요와 요구를 지니고 교회를 찾는 삶에 지친 이민자들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어떻게 돌보고 교육하고 지도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냐의 문제가 목회자들에게 맡겨지기 때문이다. 한인 이민교회가 이러한 도전을 외면한 채 증가된 교인의 수와 그들의 종교적 헌신에 안주하여 이민자들의 필요와 요구의 만족을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면 개인적인 삶의 차원에서 증대된 종교성 이외의 다른 결실들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이민교회의 기능과 그 의미가 쇠퇴되고 퇴색되어질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민교회에 대한 종교 사회학적 연구는 이민자들의 현실적인 삶의 상황과 교회의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변화해 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이해는 이민자들 간의 사회, 문화적 차이점들을 논의 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한인 이민교회가 인종적으로 단일한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다양한 차이점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민교회의 내적 다양성(*Inner Diversity*)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이민 온 시점에 따라 나뉘질 수 있다.

2. 이민 시기에 따른 특성 개관

가. 1960년대 - 1970년대

첫 번째 시기는 이민법 개정 이후 10년간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 이민 온 이민자들의 특징은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미국 이민국 연합(1965-1974)에 의하면 한국 이민자들 중 67%가 한국에서 전문직, 기술직, 혹은 관리직 종사자였다.¹¹⁾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 중 약 80%가 1965년

11) T.S Chung, *Roots and Assimilation* (Elking Park: The Phillip Jaisohn Memorial Foundation Inc, 1981), 10.

이민법 개정 후에 미국에 온 이민자들이다.¹²⁾ 이 시기 이민자들 중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대학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었고(남자 61%, 여자 53%), 1/3가량의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일정부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 중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였다. 그러나 소수의 인원을 제외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미국에서 다닌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이 시기에 이민을 온 이민자들은 이전 세대들이 한국의 사회, 정치적 상황에 깊게 관심하고 활동했던 것과는 다르게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건너온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높은 학력의 소유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였고 직업과 삶의 수준의 하향이동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근면하고 성실한 삶의 태도를 잃지 않으며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수행하였다. 그 결실로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 정착을 하였고 자녀들의 교육에 그들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미 한국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자라고 교육받은 이들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보수적인 성향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유교 사상의 영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현재 한인 이민교회의 주요 구성원이자 지도자들인 경우가 많으며 한인 이민사회 속에서 1세로 분류되어진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메리칸 드림은 그들의 자녀의 삶 속에 투영되어 구현되는 모습을 보였다. 모든 노력과 시간과 열정을 다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일은 이들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고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많은 수의 한인 이민자 자녀들이 성공적인 학업의 성취와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그룹은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문제로 또 다른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1세들이 삶을 모두 바쳐 교육시키고 지원하는 동안 그들의 자녀들은 미국식 사고방식과 가치, 언어로 교육받았고 그들의 부모들의 삶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자신들의 부모들이 가진 한국인으로서의 뿌리와 전통들은 이들에게는 부담스럽고 시대에 맞지 않는 것들로 여겨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1세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기대하고 바

12) 유의영, "21세기 한인교회의 전망" (D.Min 강의안,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0년 봄) 6

13) Won Moo Hurh and Kwang Chung Kim, "Religious Participation: Ethnic Roles of the Korean Church," 58.

라는 정체성을 인정하기 보다는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공간을 갖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많은 이민교회들이 경험하고 있는 영어목회 속에서 드러나는 1.5세 2세들이 가진 공통점이기도 하다.

자신들이 살아온 삶에 대한 희망이자 자부심이었던 그들의 자녀들과의 소통의 어려움과 갈등은 이들을 이민생활 전반에 걸친 회의와 무기력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에 도전을 주는 문제이기도 하다.

나. 1980년대 - 1990년대

이 시기에 이민 그룹들은 가족초청으로 미국에 온 경우, 한국의 사회, 정치적 상황 때문에 온 경우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6, 70년대 이민 온 그룹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기반을 잡고 그 가족들과 친지들을 초청하기 시작했고, 80년대 이후 한국의 불안정한 사회 정치적인 상황은 많은 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미국이라는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게 했다. 이들의 삶은 이전시기의 이민자들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하게 전개되었다. 직업의 하향이동이나 언어의 장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이미 정착해서 삶을 일궈가는 한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성장하고 있던 한인 타운과 교회 등의 제반환경들은 이들의 삶을 돕는 여건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가족 중심의 소규모 비즈니스가 이들의 대표적인 경제활동과 직업이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이들과는 또 다른 그룹이 한인 이민교회 안에 존재하게 되었다. 이민 1세대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1.5세의 그룹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민법 개정 이후의 이민은 대부분 가족 중심의 이민이었기 때문에¹⁴⁾ 그 시기에 이민 온 한인 이민자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장해서 또 다른 그룹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들을 1.5세라고 칭하고 분류하는 것은 어른들과는 또 다른 적응의 시기를 보냈고 이들만의 특유한 경험들이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의 문화의 중간지점에서 있는 이들은 자라면서 정체성의 위기를 겪기도 하고 주변인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기도 한다. 한인 교회들은 이러한 새로운 그룹의 출현에 대해 능동적으로 준비하지 못했으며 그들의 삶의 경험과 요구들을 경청하고 인정하며 교회의 미래를 이들과 함

14) Won Moo Hurh and Kwang Chung Kim, "Religious Participation: Ethnic Roles of the Korean Church," 59. 허원무와 김광정은 81%의 응답자가 결혼을 했으며 평균 가족 구성원의 수는 3.5명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게 설계하는 일에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 많은 한인교회들 속에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돌봄과 목회는 원활히 이루어 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1.5세 그룹들이 중심 구성원으로 한인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었다. 이들은 그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한인 커뮤니티를 벗어나 다문화목회(Multicultural Ministry)나 미국의 대형교회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곳에서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한인 커뮤니티와 미국사회의 경계를 오가는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다. 2000년 - 현재

이 시기의 미국에 온 한인들은 가족중심의 유학생 그룹들 혹은 조기유학생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조기유학이 급증함에 따라 부모 중 한 명, 주로 어머니들과 아이로 구성된 가정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들은 오직 자녀의 교육을 위해 미국에 온 경우이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친지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에게 이민교회는 교육의 기회와 삶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효과적인 장소이며 한인 이민교회들은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방면의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학생 그룹의 성격 변화도 이민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이 시기의 유학생들은 가족을 동반한 이주형태를 보이는 비율이 증가했다. 이들은 가족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을 원하고, 한인교회는 이들의 정착과 적응을 돕는 효과적인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학업을 마친 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직업을 얻어 정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의 높은 교육 수준과 이전 세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은 한인 이민교회에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들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관들을 지닌 1세대들과 충돌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각각의 특성을 인정하며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시기는 또한 이민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2세들의 그룹이 형성되고 확장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고등교육을 마친 2세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많은 수의 한인 이민교회들이 영어목회(English Ministry)를 구성하기 시작했다.

고 대부분 영어권인 한인 2세들은 1세교회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직을 구성해서 활동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그들만의 독특한 경험과 필요의 충족을 위해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2세 그룹을 어떻게 포용하고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는 한인 이민교회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다.

제 3 절 한인 이민교회의 문제점: 대립과 분열

위에서 살펴 본 대로 한인 이민교회는 그 이민의 시기에 따라 그에 따른 서로 다른 삶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는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가 결여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미국사회 속에서 한인 이민교회의 민족적 문화적 기능이 강조되고 부각되면서 한인 이민교회 내부의 다양성일 인식하기보다는, 한인이라는 광범위한 공통점 속에 모든 것을 포함시켜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한인사회와 교회들 속에서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 민족적, 문화적 동질감을 가지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의 개발과 동시에 그 “우리”속에 어떤 다름이 있는지를 보는 일 또한 같은 비중으로 중요시 되었어야 했지만 이민사회의 특성상 우리 안에 존재하는 내부적인 다양성에 대해서는 깊게 지속적으로 관심하지 못해왔다. 따라서 한인 이민교회 내부의 다양한 차이를 가진 그룹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과 리더십이 결여되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목회적 돌봄의 결여에 대한 결과로 서로 다른 성격과 관심을 가진 그룹들 간의 충돌, 대립과 갈등은 한인 이민교회 안에서 공공연한 일이 되어 왔다. 표면적으로 목회자와 성도들의 갈등이 교회분열의 원인이지만, 그 이면에는 목회자들 사이에 두고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성도들 간의 보이지 않는 불신과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대립과 충돌은 교회의 분열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이는 한인 이민교회와 그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와 좌절을 안겨주었다. 또한 대립과 충돌이라고 까지는 말 할 수 없지만 한인 이민교회에서의 존재하는 1세대와 2세대 간의 해소되지 않는 문화적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는 2세대들이 성인이 된 이후 한인 이민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이 장에서는 한인 이민교회가 안고 있는 교회 구성원들 간에 서로 다른 가치관

과 격차의 원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삶의 격차

한인 이민교회 안에는 개개인의 학력과 직업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수준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특히 이민사회 속에 평배한 성공지향적인 문화 (Achievement-Oriented Culture)는 경제적인 성공과 학업의 성취를 이룬 소수의 사람들을 주목하여 그들의 삶을 이민자들이 모두 추구하고 따라야할 이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공지향적인 문화는 많은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메리칸 드림과 맞물려 이민생활의 하나의 지표처럼 여겨지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어려움을 딛고 경제적인 성공을 이룬 이민 1세대이나 성공적인 학업의 성취를 이룬 이민자들의 후손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성공적인 삶에 가려져 있는 다른 많은 수의 이민자들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들은 여전히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한 경우도 있고, 신분이 불안정한 경우도 있으며, 자녀교육 또는 결혼생활에서 좌절을 경험하여 힘겨운 매일의 나날을 살고 있는 경우들도 있다. 성공지향적인 문화가 평배한 한인 이민교회 안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솔직하게 내어놓기를 꺼려하며 이러한 경향은 이들로 하여금 교회로부터 자신들 스스로 거리를 두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삶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민자들과 소위 성공한 이민자들 간의 괴리는 상대적 우월감 또는 소외감을 경험케 하고 이는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구분 짓고 대립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2. 세대 간의 격차

한인 교회 안에 존재하는 세대 간의 격차에 따른 논의들은 이미 여러 가지 학문적인 연구들을 통하여 한인 이민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의 소통과 연합은 여전히 이민교회의 큰 숙제로 남아있다. 이민 1세대와 1.5세, 2세대와의 언어와 문화의 차이 등은 그들 사이의 원활한 소통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해의 부족과 무관심 등은

한인 후손들로 하여금 한인 이민교회로의 정착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많은 수의 한인 2세들이 그들의 부모의 교회를 떠나 다른 인종커뮤니티의 교회 혹은 다문화 교회 등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1.5세나 2세들이 한인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경우에도 1세들의 교회로부터 재정적으로 조직적으로 독립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두 가지 다른 교회조직으로서 운영될 뿐 둘 사이의 유기적인 교류나 연합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2세대들은 1세들과 달리 신앙의 형성에 있어서 체험적 신앙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2세들의 교회 생활은 부모님들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들에게는 신앙의 직접적인 체험 없이 1세대 부모들이 요구하는 신앙적인 삶에 대한 충돌과 그로 인한 신앙적 갈등이 존재한다. 그로 인해 그들이 부모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경우, 삶의 우선순위에서 신앙생활은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스스로 삶을 책임져야 하는 연령이 될 때 이러한 체험적 신앙의 결여와 부모와의 신앙적 갈등은 그들의 미래를 위한 선택과 결정 과정에서 부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자 하며, 부모의 조정능력은 상실되고 만다.

이민교회 가운데 벌어지는 교회 내의 분쟁과 교회가 갈라지는 아픔을 지켜보며 자란 2세들은 1세들의 지도력에 대하여 불신하고, 교회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더욱이 교회가 갈라짐으로 친한 친구와 멀어지고 헤어지는 아픔을 겪은 2세대일 경우, 이 아픔은 그들 속에 아주 깊이 남게 되고 특히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은 이들의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많은 2세들은 이민 교회가 미국의 주류사회(main stream)에서 동떨어져 있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 이민교회의 방향과 비전이 미국사회가 제시하는 것과 방향이 다르다고 느낀다. 그래서 이민 교회가 미국사회와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이민 교회가 복음적이며 근본주의적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 가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특수성이 있는데 바로 민족주의적이라는 것이다. 정체성 확립을 위해 이민교회는 한국인이라는 것을 강조해왔고, 이러한 노력에 한인 이민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세대들에게는 민족성 고수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 또한 이민교회 내부에 존재하는 1세대와

2세대가 겪는 세대 간의 격차라고 볼 수 있다.

3. 성별의 차이

한인 이민사회의 가정 속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풍습은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 요즈음에도 크게 변하지 않고 지켜져 오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관습이 뚜렷이 드러나는 한 예가 성역할에 대한 잘못된 기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교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은 한국의 전통 속에서 여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무엇에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지 등의 규범들은 여전히 한인 이민교회의 여성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 속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Marc S. Mullinax는 한인 이민교회 안에서 유교전통과 한국여성들의 삶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설문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다. 그의 설문 조사를 보면 유교적인 가르침이 자신들이 자라오는 동안 중요한 것이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How important was Confucian teaching to you as you grew up?) 3분의 2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대답했음을 보여주고 있다.¹⁵⁾ 흥미로운 것은 응답자의 대부분이 여성들이었다는 것이다. 위의 설문 조사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교적인 가르침은 여전히 한인 이민가정과 교회에 깊이 뿌리내려 있고 특별히 여성들의 삶을 규정하는 규범이 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유교적인 전통이 가진 긍정적인 측면, 즉 웃어른에 대한 공경, 섬김과 순종,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미덕 등은 한인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특히 여성들에 대한 고정관념은 미국에서 교육받고 자라는 여성들에게는 공감할 수 없고 따라가기 버거운 규범이 되어왔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한인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고정관념들은 교회 회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제한하고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한인교회로 하여금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의 고민과 주제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5) Marc S. Mullinax, "Does Confucius Yet Live?: Answers from Korean American Churches," *Journal of Asia and Asian American Theology* 3, no. 1 (Spring 1999), 37-38.

4. 신앙적인 노선의 차이

수백 여 개에 달하는 개신교 교단의 수가 증명하듯이 기독교 안에도 다양한 교리와 신앙의 노선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민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한인들의 한 특징은 자신들의 신앙 노선과 방향이 종교적 삶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삶 전체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서로 다른 신앙의 모습들에 대해 더욱 예민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다른 점들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을 듣고 대화하려는 노력보다는 서로를 수용하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의 형태로 정죄해 버리는 오류를 범하게끔 한다. 이것은 부단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각 교단들의 모습 속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문제이다. 한국 교계의 분파주의적이 모습이 이민사회 교계에도 그대로 드러나 목회자를 청빙하는 문제에 있어서 교단과 교파가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잘못된 분파주의적인 모습으로 인하여 신앙의 형태의 다름을 근본주의적인 신앙, 물질주의적인 신앙, 자유주의적인 신앙 등의 이름으로 서로의 다름을 판단하고 분열되는 모습은 한인 이민교회에서 종종 발견되는 모습이기도 하다. 본인이 사역하는 교회 공동체의 한 사례를 예로 들겠다. 부목사를 청빙하는 할 때 청빙대상자의 출신 교단이 문제가 된 일이 있다. 청빙절차를 거쳐 목회자로서의 인격과 충분한 목회 경력·자질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빙 대상자가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를 받은 출신교단을 더 중요시하는 잘못된 평가의 기준이 있음을 경험했다. 이것은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신앙적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생각한다. 서로 다른 신앙적 전통 아래 신앙을 쌓아온 성도들은 자신이 훈련 받아 온 신앙의 전통과 다른 모습이 발견될 때 그것을 다양성 안에서의 한 예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옳고 그릇의 문제로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교회 안에서 하나의 예전의 형식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그것이 제대로 정착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신앙적 노선의 충돌의 한 예라 생각한다.

5. 지역감정의 차이

한국은 그 영토의 크기가 작은 것에 비해 각 지역의 특색이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 언어와 문화, 생활 풍습에 이르기 까지 지역별로 다양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근 현대사 속에서 이러한 지역적인 특색과 다름은 지역 색을 기반으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넓히려는 정치인들에 의해 오랜 기간 동안 이용되어왔고, 그 결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하기 보다는 서로의 우월함을 주장하며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풍조로까지 이어져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동과 서, 남과 북의 차이들은 우리 속에 존재하는 풍성한 다양성으로 보여지기 보다는 쉽게 극복할 수 없는 깊은 골처럼 한국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갈등의 모습은 미국의 대선이라든지, 한국의 총선·대선의 시기가 되면 쉽게 볼 수 있다. 서로 다른 사상적 이념이나 지방색이 단순히 다양성의 한 모습으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전쟁이라는 민족 분열의 씻을 수 없는 상처와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국가 내부적 분열의 아픔을 안고 있는 1세대들에게 다름은 단지 다양성이 아닌 자신을 반대하는 대립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사소한 대립이 단순한 논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관계에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장애요소를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된다.

6. 정치관의 차이

한인 이민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는 1세 이민자들이 한국 정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오랜 이민생활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지지하는 정치적인 그룹들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정치인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그들은 지지의 여부에 따라 후원의 모임을 가지기도 하며 미주 한인 사회에 그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한다. 한국 정치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따라 한인 이민사회 구성원들의 정치적인 성향도 다양화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성향의 차이는 종종 보수와 진보라는 구도로 대립의 양상을 보이며 한인 이민사회를 나누어지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인 이민교회 안에는 인종적 문화적으로 단일한 공동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내부에 다양한 차이점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 경제적인 지위에 따른 삶의 격차, 세대 간의 격차, 성별의 다름, 그리고 신

양 노선의 차이, 지역감정과 정치관의 차이 등은 한인 교회 내부에 존재하는 내적 다양성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한인 교회 안에서 종종 갈등과 대립의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서로의 다름과 다양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려, 대화와 수용보다는 다름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이 결국 분열과 이합집산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것은 뿌리 깊은 유교 사상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사회의 고정관념 때문이다. 우리는 변화에 인색하고 남과 다름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오른손으로 밥 먹고 글씨 쓰는 생활을 강요받아 왔다. 오른손잡이로 자란 아이들은 간혹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왜 왼손으로 밥을 먹지?”라고 의아해한다. 우리는 다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다름이 인정되고 수용되지 않는 문화 속에서 알게 모르게 받았던 많은 상처들이 있다. 그 상처들이 다름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만들었다. 이것은 유교 문화 속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은 1세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민사회와 한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가시처럼 남아있는 다름을 인정받지 못했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포용의 경험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때 한인 이민교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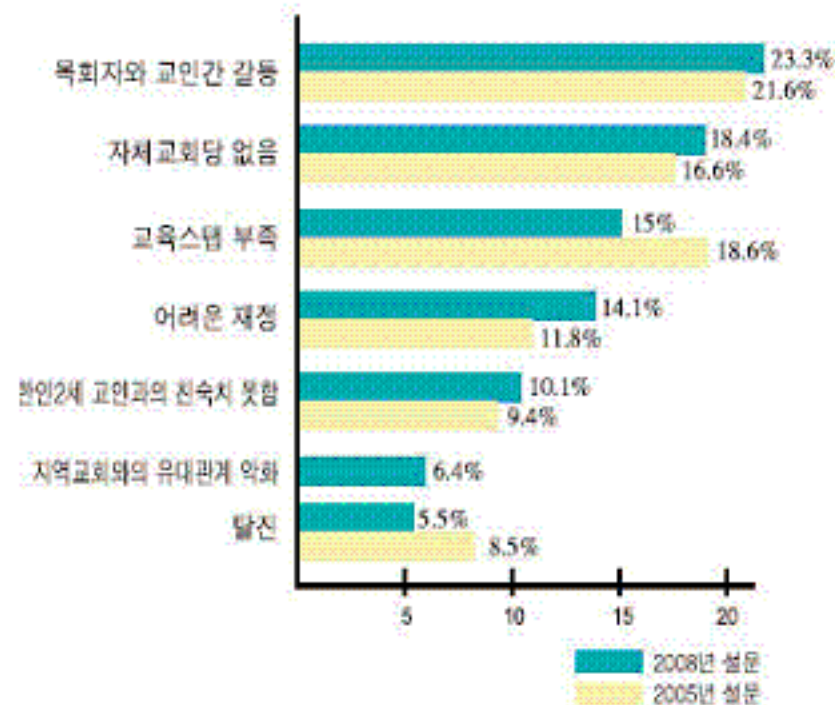
그러므로 오늘날 이민교회의 모습 속에서 목회자들은 새로운 소명을 깨달아야 한다. 100년의 역사를 넘어서서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준비해야 하는 이때에 요청되는 목회적 마인드와 리더십의 종류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배척하고 구분 짓기 보다는 이러한 다양함들이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중요한 자원됨임을 인식하는 성숙한 자세가 목회자들에게 먼저 요청된다고 하겠다. 단지 개 교회의 양적 성장에만 집착하여 교인들의 수평이동만을 부추기는 근시안적인 목회와 리더십을 넘어 우리 내부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분열과 갈등을 타파하고 화해와 포용의 목회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21세기 이민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일 것이다.

제 3 장

한인 이민교회 지도력의 유형

지금 한인 이민교회는 리더십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미주 크리스찬 신문에서 조사한 아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아래 도표 참조) 미주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겪는 이민교회 사역에서의 가장 어려운 점이 목회자와 교인간의 갈등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민교회는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다.¹⁶⁾

이민교회 사역의 어려운 점은?



많은 목회자들은 다양한 세대와 계층으로 구성된 이민교회 특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행한 개혁으로 인해 교회갈등을 야기하고 이러한 갈등의 책임을 미성숙한 성도들의 신앙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하지만 교회 내 발생하는 문제의

16) 우형건, "미주한인교회 74%, 100이하 교인," *크리스찬 투데이*, 2008년 5월 14일자.

책임은 전적으로 목회자의 리더십과 관련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리더십은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상황과 대상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목회자들은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만들어내는 이민교회 특유의 독특한 문화적 배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 속에서 리더십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풀러 신학교 교수로 재직 은퇴한 J. Robert Clinton은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분의 목적을 향하여 가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¹⁷⁾

영적 리더십이란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한다. 결국 목회자의 리더십의 위기란 곧 성도들의 삶에 대한 영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향력을 상실한 목회자는 아무리 선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했다 해도 그 비전을 이룰 수 없다.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목회자의 리더십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섬김의 헌신과 수고가 있을 때에 만 가능하다. Laurie Beth Jones은 리더십을 위한 목회자의 수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한 다발의 화환과 한 봉지의 꽃씨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하겠는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환을 택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리더'라면 그 꽃들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결국 꺾이고 만다는 한계를 깨닫고, 씨를 수집하고 분류하여 뿌리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노예 주인들의 요구를 수용했다라면 그는 화환 세례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자유의 씨를 뿌리는 것을 선택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영원한 리더가 되었다.¹⁸⁾

한인 이민교회의 성장의 한 모델로서 잘 알려진 휴스턴 서울침례교회의 담임목사인 최영기는 그의 저서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17) J. Robert Clinton, *The Making of Leader: Recognizing the Lessons and stages of Leadership Development* (Colorado Springs: Navpress, 1988), 14.

18) Laurie Beth Jones. *예수의 오메가 리더십*. 송경근·김홍섭 역 (서울: 한국언론자료간행회, 1995), 95.

가정교회가 성공하기 위하여서는 지도자의 개념이 갱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겠지만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 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길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¹⁹⁾

한인 이민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리더십의 구조와 상황에 대해서 세대별로 나누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1세 이민 성도들 가운데 나이 많은 이들은 담임목회자의 의견에 무조건 따르는 경향이 있다. 이들이 원하는 리더십은 “질문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구조이다. 이것은 유교적 문화와 사상 아래서 교육받은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40대 정도의 연령층은 설명을 수반하는 수평적 리더십을 요구한다. 수평적 리더십의 구조는 영적질서에 대해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 때로는 교회 공동체의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20-30대들이 요구하는 리더십의 구조는 관계적 리더십이다. 그들의 리더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요구한다. 단편적이지만 이렇게 다양한 문화에 따른 다양한 리더십의 요청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오늘 한인 이민교회의 상황이다.

이러한 다양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 장에서는 한인 이민교회를 이끌어 왔던 리더십의 유형을 카리스마적 리더십, 민주적 리더십, 그리고 포용적 리더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각각의 리더십의 특징과 장단점들을 살펴보면서 미래의 한인 이민교회의 리더십이 보완하고 개발해야 하는 부분인 무엇인지, 그리고 한인 이민교회의 대안적 리더십의 형태로서 포용적 리더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제 1 절 카리스마적 리더십 (Charismatic Leadership)

첫 번째 리더십의 유형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다. 이 유형의 리더십은 권위주의적 리더십 (Autocratic Leadership)과 많은 부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목회의 정책, 기술, 방법에 이르는 전 과정을 리더가 스스로 결정하고 수행하는 것이 이 유형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평신도들의 참여나 의견은 결정과정에 포함되지 않으

19)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 1999), 190.

며 목회자의 의지와 소신이 모든 일의 진행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고려되고 존중된다.

Leith Anderson은 그의 책 *Leadership That Works*에서 리더십에 관한 네 가지 Myth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²⁰⁾ 그 중 두 번째와 세 번째로 그가 지적하고 있는 리더십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은 “리더십은 모두 리더에게 달려있다(Leadership is all about leaders)”는 것과 “모든 리더들은 영웅들이다(All leaders are heros)”라는 것들이다. 다른 말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일을 만들어 가는 것은 전적으로 리더에게 달려 있고 그들은 영웅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리더십의 형태는 교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목회자 당사자에게도 장기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Anderson은 지적하고 있다.

한인교회 상황에서 목회자에게 기대되는 리더십이란 아직도 많은 부분 권위적이고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인 경우가 많이 있다. 목회자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따름을 통해 목회를 돕는다는 생각의 저변에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에 대한 기대와 요청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Anderson이 지적한대로 이러한 생각들은 리더십에 대한 환상이며 그 이면에는 능동적으로 변화하기를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삶의 자세들이 자리잡고 있다.

한인 이민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교회 성장의 중요한 견인차의 역할을 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수많은 한인 교회들이 목회자들의 권위적이고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의 지도하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기도 했으며 많은 선교 사업들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리더십은 과제의 효과적인 성취라는 장점을 가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평신도들의 자발성과 가능성을 키워주지 못하게 되고 결국 무관심과 무참여를 불러일으키는 약점을 가진다. 또한 수동적으로 결정에 따르기만 했던 평신도들은 카리스마적인 리더의 부재 시 신앙생활과 교회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한다.

또한 카리스마적 리더십 구조에서는 교회의 부흥이 더디거나 현저한 이벤트나

20) Leith Anderson, *Leadership that Works: Hope and Direction for Church and Parachurch Leaders in Today's complex World* (Minneapolis, MN: Bethany House, 1999), 39-47. Anderson이 말하는 네 가지 Myths 들은 다음과 같다. “1. Leaders must have all the right traits, 2. Leadership is all about leaders, 3. All leaders are heros, 4. Pastors must have the gift of leadership.”

성장이 보이지 않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목회자에게 돌린다. 다시 말해 목회자의 리더십 부족이 모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목회자들은 가시적이고 성공적인 목회적 사안들에 더욱 열중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이렇게 성과(performance)에만 관심하게 만드는 성취 지향적 문화는 목회자들로 하여금 완벽주의를 추구하게 하며 과도한 목회업무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삶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이다.

*Asian American Religious Leadership Today: A Preliminary Inquiry*의 연구에서 이러한 목회자들의 현실은 그들 스스로에 대한 돌봄(Self-Care)을 간과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많은 수의 목회자들에게 공동체의 리더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 돌봄에 대한 중요성을 다른 목회적인 일들보다 의미 있고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²¹⁾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목회자의 영적 돌봄과 재충전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가치 있는 일로 여기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한다.²²⁾ 그러나 리더십의 형성과 개발에 있어서 목회자 자신에 대한 영적 돌봄과 재충전은 필수적인 요소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공동체의 리더로서 목회자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한 채 가시적인 실적위주의 목회만을 추구하는 것은 목회자와 교인들 모두에게 건강하지 못한 리더십의 형태라는 것을 지적한 연구는 권위적이고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보편적인 리더십의 형태로 받아들여 온 한인 이민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게 한다.

제 2 절 민주적 리더십 (Democratic Leadership)

두 번째 리더십의 유형으로 민주적 리더십을 들 수 있다. 이 유형의 지도자들은 권위주의적 리더들과는 반대로 모든 정책, 프로그램, 목회의 진행에 대한 모든 일들을 평신도 그룹과 의논하고 결정한다. 이러한 유형의 리더십은 목회 과제 수행에 있어서 평신도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결정 과정에 평신도들을 함

21) Timothy Tseng, *Asian American Religious Leadership Today: A Preliminary Inquiry* (Durham, N.C.: Duke Divinity School, 2005), 38.

22) Ibid.

게 참여토록 한다는 점에서 참여적이고 개방적인 목회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의 형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리더십은 목회의 과제수행과 그 결과에 이르기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안의 결정에 있어서 의견의 다름이나 갈등과 대립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각 그룹들의 이해와 요구의 다름을 어떻게 중재하고 이해시키며 풀어나갈 것이냐의 과제는 여전히 목회자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상황뿐만 아니라 이민교회의 현실 속에서 민주적인 리더십의 개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남겨져 있다. 민주적인 리더십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한인 이민교회들은 자체에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구성원들은 대부분 장로들과 안수집사들이다. 이들이 구성하고 있는 당회나 운영위원회 등은 교회 내에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로서 교회의 제반 중요 사안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교회의 운영에서 민주적인 리더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표적 의사결정 기구 속에 다양한 교회안의 목소리를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목회자는 여성신도들과 대학, 청년부 그리고 청소년과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을 확대하는 방안을 창의적으로 마련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결정된 목회의 사안들은 보다 광범위한 공감대 속에서 힘을 얻으며 추진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과정들은 세대 간의 교류와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적인 리더십의 개발과 정착을 위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것 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의 합일안의 도출을 위해 대화하는 노력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민주적인 리더십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은 각자의 의견을 내어놓고 대화하는 것이다. 한인 이민교회의 목회자들은 자유로운 토론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한국의 문화적 풍토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의사표현의 형태라든지 그 방식에 대하여 충분히 배려와 존중이 바탕이 된다면 보다 성공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의사표현들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즉 당회와 운영위원회 등을 제외한 다른 교회 구성원들의 참여와 의견 개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촉진(facilitate)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포용목회와의 관련성 속에서 위의 두 가지 리더십은 그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형태로 포용목회를 실현하고자 할 때의 문제점은 포용의 당사자들을 포용의 대상(object)으로 한정지어 포용의 관계 속에서 수동적으로 만든다는 것에 있다. 상호성이 결여된 포용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그 관계를 통한 성장을 기대하기도 어려워진다.

민주적 리더십의 형태를 포용목회와 연관 지어 볼 때에는 포용의 전 과정에 대한 헌신(commitment)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포용의 과정은 일회적으로 완성되는 작업이 아니라 포용을 실현하고자하는 포용의 주체인 목회자와 교회 구성원들 간의 끊임없는 노력과 추구를 통해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포용이란 포용의 당사자와 대상간의 어느 한 순간의 경험을 통해서 완성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라는 과정에 놓여 있는 것과 같이 끊임없는 성숙의 과정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목회자와 교회의 리더들이 구성원들의 의사와 요구를 모아 포용의 목회로 지속적으로 헌신하게 할 것이냐가 포용목회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민 1세대와 1.5세대 그리고 2세대가 함께 구성원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인교회의 상황에서 각각의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의 유형은 다양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한인 교회의 상황과 교회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대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는 실제적인 대안으로 포용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포용목회는 한인교회에 요구되어지는 새로운 목회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제 3 절 포용적 리더십 (Embracing Leadership)

세 번째 유형의 리더십은 포용적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의 리더십은 위의 두 가지 유형의 리더십이 가지는 장점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교회 구성원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프로그램 및 소그룹개발과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힘쓰는 것을 목회의 기본 틀로 하고 있으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만의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목회의 전체적인 통합과 비전을 추구하는 리더십의 유형이다.

포용적 리더십을 논함에 있어서 최근 교회성장의 목회이론 가운데 가장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Cell 목회의 원리들과 관련을 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포용적 리더십은 Cell 목회 원리들의 장점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리더십의 유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회의 성장에 관심하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이민교회들에게 소그룹운동(small group movement)이나 Cell 목회(cell-based ministry)에 대한 연구들은 이미 교회성장에 필수적인 지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목회의 방법론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Cell 교회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²³⁾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교회성장의 원리들을 적용하려 애쓰고 있는 모습은 여러 이민 교회의 목회 현장에서 목격되고 있다.

박영철은 그의 저서에서 셀 목회에서 말하는 교회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라고 주장한다.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를 깨닫고 매우 흥분했다. 그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권속'(엡2:19),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엡 3:1~10)등으로 묘사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새로운 가족공동체의 출현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는 혈육의 가족 관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공동체가 탄생했음을 의미한다.²⁴⁾

셀 중심 목회의 출발점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치중하였던

23) Steve Cordle, *The Church in Many Houses: Reaching Your Community Through Cell-Based Ministry* (Nashville: Abingdon Press, 2005), 19-21. S. Cordle는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cell 현대 교회운동의 본산지이며 그 근원 (the birthplace of the modern cell movement) 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대한 기독교 감리회의 광림교회도 cell목회의 성공적인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24) 박영철, *셀교회론* (서울 요단, 2004), 173.

교회시스템의 비판에서 시작된다. 다시 말해 세계는 전쟁과 기근, 가정파괴와 관계의 단절로 인한 개인의 삶의 의미상실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교회는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²⁵⁾ 고통 받는 이들의 삶에 희망을 주고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변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교회 구조의 유지와 교회 구성원들만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망각한 것일 뿐 아니라 교회가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유지할 수 없게 한다.²⁶⁾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의 의미이다. 실제로 많은 수의 교회들이 개 교회의 운영과 교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부분의 재정과 인력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이러한 비판은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이렇게 관계(Relationship)와 복음화(Evangelism)의 중요성을 새롭게 강조하는 새로운 목회를 향한 움직임들은 그 목회적 원리로서 Cell 조직을 이용한 교회조직의 운영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작은 단위의 모임들은 장소와 형식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교회를 벗어나 사람들의 사적인 생활공간, 즉 가정이나 식당 혹은 공원이나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장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만남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의 만남에서 얻을 수 있는 관계의 질과는 다른, 보다 다양하고 깊은 차원의 삶의 나눔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는 관계의 성숙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모임의 형태는 비신자들이 큰 부담감과 거리낌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소모임들 속에서 참석자들은 삶의 나눔 등을 통하여 긴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Relationship)의 정립은 복음화(Evangelism)의 초석이 된다는 것이 Cell 목회 방법론의 기초이다.

각각의 소모임들의 활성화를 돕는 것과 동시에 교회 예배의 형태 또한 새롭게 편성함으로써 비신자들의 예배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Cell 목회 방법론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배의 자리가 교회에 모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축제(Celebration)와 감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신자들

25) 박영철, *셀교회론*, 20.

26) Steve Cordle는 이러한 교회를 Program-based church로 칭하고 Cell-based ministry와 구분하고 있다.

을 적극적으로 예배에 초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새롭게 교회를 찾는 사람들을 예배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Cordle는 Cell 교회 안에는 큰 모임으로서 축제적인 예배와 작은 모임으로서의 Cell은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며, 소모임(Cell)과 예배(Celebration)는 Cell 교회의 두 축이라고 말하고 있다.²⁷⁾ 우리는 신약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에서도 두 축, 즉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는 대그룹과 가정에서 모이는 셀을 통해 주님의 임재와 가족 공동체의 경험을 누리는 소그룹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 2:46-47)

Cell 목회의 방법론은 특별히 이민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이민교회들에게 무척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되어 왔다. 이국땅에서 관계의 왜곡과 결핍 속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친밀한 목회적 돌봄과 나눔이 있는 관계의 회복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인 것이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들 속에서 많은 이민자들은 상처의 치유를 받고 새 삶의 기운을 얻으며 신앙으로 그들의 삶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효과적인 목회방법론을 교회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가져야 할 리더십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Cell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Cell 목회는 각각의 소모임들은 자체적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하고, 성장이 되면 분할되어 또 다른 Cell 조직을 만들어 가는 것을 그 원리로 하고 있다.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야기 하자면 제자화(弟子化) 할 수 있는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공동체 리더로서의 목회자가 Cell 목회의 원리들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L. Anderson은 지적한대로, 목회자는 어떻게 각각의 그룹들이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또한 그룹들이 어떠한 관계들을 맺고 있는지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⁸⁾ 아무리 Cell 조직이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지고 분화한다고 할지라도 그 그룹들은 교회라는

27) Cordle, *The Church in Many Houses: Reaching Your Community Through Cell-Based Ministry*, 22.

28) Anderson, 137.

집합적인 공동체와 뗄 수 없는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그 모든 그룹들을 아우르고 연결하며 성장을 촉진시킬 책임을 갖는 것이다. 모든 그룹들은 서로 다른 성격과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이러한 다양성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려, 그리고 그에 따른 지도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그룹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기체적으로 통합되기 보다는 그룹의 이해와 특질에 따라 개별화되고 말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Cell 조직의 성장은 Cell-based ministry의 운영원리에 따른 과정적 결과물이다. 그와 동시에 목회자에게는 각 cell group들을 교회라는 전체적인 공동체로 통합하고 성장시킬 리더십이 요청된다. 목회자가 어떠한 형태의 리더십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Cell-based ministry로 성장하고 있는 목회의 방향과 성격 그리고 성패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Cell-based ministry를 효과적으로 품으며 구현할 수 있는 리더십의 형태인 포용적 리더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포용적 리더십은 세 가지의 측면으로 기술 될 수 있겠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다양성의 인정을 들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화합을 들 수 있을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각한 공동체의 비전제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1. 다양성의 인정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양성 안에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각기 다른 재능은 우리의 다양성 안에서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부여하신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게 될 때 공동체 안에서 보다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사람은 사람사이의 차이를 종식시킬 순 없어도 그 다양성을 인정할 수는 있다"라는 말이 있듯, 서로 다름 속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말하고 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

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전 12:12-27)

포용적 리더십은 다양성의 인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성별, 나이, 직업, 빈부, 더 나아가 신앙적 성향과 삶의 방식의 다양성을 포용함을 뜻한다. 즉, 교회가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고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의 정신으로 환영하며 품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사회 속에서 다양성(diversity)은 명백히 존재하는 현실이지만 이러한 다양성은 현대사회속의 대립과 갈등의 원인으로 종종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다양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립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Charles Foster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다름”은 피하거나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아니라 교회와 교인들의 삶에 주어진 축복(gifts)과 자원(resources)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²⁹⁾ “다름”이 불안의 원인이거나 부정적인 요소가 아닌 공동체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며, 다르기 때문에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더욱 풍성해 질 수 있다는 시각의 정립은 한인 이민교회에 절실하게 요청되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29) Charles Foster, *Embracing Diversity: Leadership in Multicultural Congregations* (Washington, D.C.: The Alban Institute, 1997), 2.

다르기 때문에 분열되는 사회적인 현실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본다. 특별히 한인 이민교회의 분열의 문제는 이미 그 심각한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한인 이민교회의 이러한 분열의 양상은 한인 2세들이 1세 교회를 떠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연구의 결과는 한인 이민교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³⁰⁾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은 다름 가운데서 분열을 방관하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인 이민교회에 요청되는 리더십은 분열보다는 화합을, 갈등보다는 대화와 이해를 추구하는 형태의 포용적 리더십이어야 하는 것이다.

포용적 리더십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인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거나 판단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편견을 뛰어넘는 것을 말한다. 포용적 리더는 이러한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언제나 마음이 열려있고 소통 가능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다. 권위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포용적 리더는 특정 그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고, 모든 이들로부터 열린 마음으로 만나고, 그들로부터 이야기들을 듣고, 그들의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한인 교회의 리더로서 목회자가 이러한 포용적 태도를 가질 때 한인 교회는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이다.

2. 그리스도의 정신으로의 화합

두 번째로 포용적 리더십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 모든 다양성들의 화합을 모색함을 의미한다. 포용적 리더십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엇이고 그 정신을 이어받은 그리스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11절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30) Tseng, 38.

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2:1-11)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부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겸손과 섬김, 사랑과 긍휼, 그리고 하나 됨에 대해서 상세하고 설명하고 있다. 빌립보서 2장 6-11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이신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에 대해 기록함으로써 앞에서 설명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 의무를 부여하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상을 제시하고 있다.

포용적 리더십은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 사랑과 긍휼을 실천함으로 다양성 안에서의 조화와 화합을 도모한다. 또한 포용적 리더십은 인간사회 속에서는 그 다름으로 인하여 분열되고 반목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한 인간관계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하나 될 수 있음을 교인들로 하여금 체험케 하는 것이다. 포용적 리더는 다양한 그룹들 간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일에 항상 힘써야 한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서로 다른 대립의 관계들이 화합 수 있고, 서로를 인정하고 하나 될 수 있는지를 서로 다른 그룹들 간의 만남들을 통해 경험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포용적 리더는 각 그룹들의 내부적인 성장을 독려함과 동시에 그룹들 간의 연결과 소통의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며 실행하는 사람을 뜻한다.

특히 소그룹중심의 목회를 함에 있어서 Cell group들은 각각의 특징과 개성들 때문에 성장하기도 하지만 서로 대립하고 구분지어질 때도 있다. 또한 이러한 갈등은 미숙한 의사소통과 인격적 불안정, 낮은 기대감 등 대인관계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생기기도 한다. 포용적 리더는 그룹들 간에 존재하는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중재자(mediator)와 촉진자(facilitator)로서 만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그들을 대화의 자리로 초대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포용적 리더는 끊임없이 성서의 말씀과 교육을 통해 그리스도의 관용과 사랑의 정신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합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며 그를 실천으로 옮기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각한 공동체의 비전 제시

C. Foster는 나와 “다름”을 만나고(encounter) 이를 포용(embrace)할 때, 즉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 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성서의 구절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다.³¹⁾ 우리 안에 존재하는 다양성들을 어떻게 통합하여 포용목회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의 질문을 던졌을 때 위에서 논의한 세 가지의 단계들, 즉 다양성의 인정, 그리스도정신으로의 화합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각한 공동체의 비전 제시는 포용목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회자에게 뿐 아니라 포용목회의 구체적인 전개를 위한 틀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포용적 리더십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각한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의 성장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 성장을 바탕으로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역하게 될 때 그 성장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많은 교회의 리더들은 성장 그 자체에만 관심하고 중요성을 둔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교회공동체의 성장은 그 성장에 부응하는 역할이 주어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포용적 리더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속한 가족과 모임, 또는 개 교회가 가진 영역과 테두리를 넘어서 보다 큰 비전을 보게 하는 사람을 말한다. 교회 공동체 속에 존재하는 다름에 대한 인정과 받아들임, 대화와 소통을 넘어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사역 속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공동체의 리더로서 목회자가 가지는 고유한 영역이자 의무이며, 교회가 세상의 다른 공동체들과 다를 수 있는 이유인 것이다. 이 일은 종종 교인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comfort zone”을 넘어설 것을 격려하는 것이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포용적 리더십은 기존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status quo”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의 포용으로 인한 역동적인 변화를 수용하며 이를 공동체를 위한 창조적인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회자의 포용적 리더십 아래에서 교회의 cell 그룹들은 성장의 참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집합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유기적인 상호관계 속에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교회는 다양한 그룹들의 성장과 함께 그 에너지들을 모아 공동체의 비전을 추구하고 나아갈 힘

31) Foster, *Embracing Diversity: Leadership in Multicultural Congregations*, 123.

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목회자의 포용적 리더십은 이 모든 것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Cell 목회운동이 기존에 교회의 운영과 방향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었다면 포용적 리더십은 그러한 변화에 요청되는 새로운 목회적 리더십의 형태이다. 교회 공동체 속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인정하며 이러한 다양성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각하여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는 포용적 리더십은 변화의 시기를 맞아 새로운 리더십이 요청되는 한인 이민교회에 적절한 대안적 리더십의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는 전통적인 목회 리더십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즉 포용적 리더십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성장한 교회의 한 모델이라 말할 수 있다.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역시 다른 이민 교회와 다르지 않게 전통적인 이민교회의 분쟁의 상처가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던 교회였다. 이러한 교회에 정인수 목사라는 39살의 젊은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부임당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정인수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떠나고 남아 있던 교인들의 표정은 어두웠으며 목회자와 당회에 대한 불신에다 새로 오는 담임목사에 대한 의구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32)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는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다른 이민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는 교회이다. 그러나 교회의 상황은 같았지만 목회적 리더십이 새롭게 전환된 교회이었다. 정인수 목사는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가지는 전통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는 달리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의 전통을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포용하였으며, 더 나아가 그 전통을 강점으로 여겨 계승 발전시켰다. 아울러 단점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수정·보완하였다. 그는 사회적 문화적 정서가 다른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삶은 주변인의 삶일 수밖에 없기에 이민목회와 한국목회가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32) 박종호, “이민 교회의 구조 혁신과 리더십,” *목회와 신학* 2005년 7월호, 140.

이민자들은 계속해 미래에 대한 불안, 자녀들의 양육, 이중 언어권에 대한 고충, 한국에서 가졌던 사회적 지위를 누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박탈감 및 좌절감 등이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정서적으로 계속 불안한 상태이고 연약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주에서 교회는 특별히 이민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며 격려하고 세워주는 목회가 중요합니다.³³⁾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는 불안한 정서 가운데 외로움과 고독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이민자들의 현실적 상황에 맞추어 공동체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정 공동체라는 cell 사역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평신도 팀 사역의 활성을 통해 당회와 성도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모든 권한을 위임함으로 당회가 지시하는 기관이 아닌 지원과 조정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였다. 지역사회 선교사역팀을 통해 경찰서, 소방대원, 지역 사회 공무원, 이웃 주민 등을 초청하여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하려 애쓰고 있다.

이민 사회에서 겪는 1.5세와 2세대의 정체성의 혼란을 신앙으로 회복하도록 도우며 1세와 2세가 함께 드리는 정기적인 새벽기도회와 기념예배(성탄, 부활절 등)를 통해 1세대의 신앙의 뿌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일 3부 예배를 열린 예배 형식으로 2세대들의 정서에 맞게끔 디자인했다. 아틀란트 연합장로교회는 현재 주일 장년 출석 1,500명, 그 중에 2세가 200-250명이고 아이들이 500-600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하였다.

아틀란트 연합장로교회에서 알 수 있듯이 포용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형성에 있다. 목회자 자신의 이해와 요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선 되어야 하며, 성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질 때 포용의 원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다.³⁴⁾ 이 포용의 원리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단계별로 살펴볼 것이다. 이 포용의 원리가 적용되는지는 과정에서 보다 더 발전적이고 신뢰적인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고, 이 관계형성을 통한 포용목회는 기대감을 심게 하고 그 기대와 비전속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 할

33) 박종호, "이민 교회의 구조 혁신과 리더십," 141.

34) Miroslav Volf, *Exclusion & Embrace: A Theological Exploration of Identity, Otherness, and Reconcili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140-145

수 있다.

이제까지 한인 이민교회의 상황적 분석을 통하여 한인 이민교회의 현실적인 상황과 그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민교회를 지도해 왔던 지도력의 유형들에 대한 고찰과 대안적인 리더십의 형태로서 포용적 리더십의 특징과 그 의미들을 Cell목회의 원리들과 연결하여 살펴보고, 모델 교회로서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의 예를 살펴보았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포용목회의 성서적, 신학적 논의들을 통해 포용목회의 신학적 기반에 대한 논의들을 진행하려고 한다. 신, 구약성서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들을 근거로 포용목회의 성서적, 신학적 기반을 다지는 일들은 포용적 리더십의 교회적 적용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장

포용적 리더십의 성서적 신학적 고찰

이 장에서는 포용목회의 성서적 신학적 기초들을 정립하기 위해 신구약성서 속에 나타난 포용적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성서의 증언들을 인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사역의 기록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들의 기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리더십의 원리를 배울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포용적 속성, 구약성서 속의 인물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포용목회의 성서적 근거들, 예수님의 가르침과 목회 속에 드러나는 포용목회의 모습들, 그리고 바울사도의 선교사역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포용목회의 모습들을 중심으로 포용목회의 성서적 기반에 대하여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포용의 신학 (Theology of Embrace)라고 불리는 Miroslav Volf의 신학적 연구를 통해 포용목회의 신학적 기반을 삼고자 한다.

제 1 절 구약성서 속에 나타난 포용적 리더십

1. 하나님의 포용적 속성

구약성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포용적 속성은 창조 이후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만들어 주신 계율을 어기고 죄를 범하고 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창 3:9) 하고 먼저 다가와 물으시며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며 그들을 포용해 주셨다. 또한 동생인 아벨을 살해한 죄인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말씀해 주시며 죄를 짓고 두려워하고 있던 가인에게 약속의 징표를 주시며 (창 4:15) 새로운 삶을 허

락하심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포용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이방여인이자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공동체로부터 추방되어 사막의 한가운데에서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갈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창 21:16).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생명을 주시고(창 21: 17), 그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또 다른 민족을 이루어 살게 하셨다 (창 21:18).

하나님은 또한 당시 이방인 혹은 낯선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거나, 자신이 이루어 가는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시기도 하셨다. 이방지역 모압 출신의 가난한 여인이었던 룻을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룻 4:11)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시키셔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룻 4:17).

궁극적으로 구약성서 속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포용적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사 11:6-9)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나라의 이미지는 모든 대립적인 요소들이 서로 갈등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포용하여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었다.

2. 포용적 리더십의 삶을 보여준 구약성서의 인물들

후세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은 그의 삶 속에서 포용의 모습을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 중 하나였다. 특별히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과 세

명의 이방인들과의 만남의 이야기는 포용과 돌봄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되어진 것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우리는 세 명의 이방인들과 만나게 된 아브라함이 적극적인 섬김을 통한 포용으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브라함이 만난 세 명의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서 온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Strangers) 이었다. 아브라함은 이 세 명의 이방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맞이한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 나가 영접하며... (창 18:2)

그리고 그들을 자신이 소유한 것들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그들이 편히 머무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베푸는 모습을 보인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창 18:4-5)

이처럼 이방인에 대한 적극적인 돌봄과 포용의 모습을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그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고, 신앙의 족장으로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삶을 예시하셨다(창 18:10-18).

구약성서 속에 나타난 요셉과 다윗의 이야기는 포용적 리더십의 또 다른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의 이야기는 자신을 질시하고 미워하여 죽은 것으로 위장하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형제들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요셉은 자신의 높은 지위를 이용하여 그의 형제들을 벌하거나 책망하기 보다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포용하며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하여 증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시라. (창 45:5-8)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형들을 품고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요셉은 인간적으로 용서하고 포용하기 힘든 고난과 어려움의 처지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악을 행했던 형제들에게 화해와 포용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이다.

군사 삼천을 거느리고 세력과 힘이 커가는 다윗을 견제하고 해하기 위해 쫓아다니던 사울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가문이 멸망에 이르렀을 때 다윗은 왕위에 올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사울의 가문에 살아남은 자손들에게 복수를 하기 보다는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준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베풀고자 하노라” (삼하 9:3). 다윗은 사울의 자손 중에 살아있는 자를 찾아 자신의 식탁에 앉혀 음식을 먹게 하며 이들을 용서하고 두 팔로 끌어안는 포용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구약성서는 포용적인 삶을 통해 자신과 다른 이방인들, 자신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해하려 했던 사람,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 까지도 포용하는 모습을 통해 평화를 이루는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아브라함, 요셉, 그리고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모두 공동체의 리더들이었으며, 그들의 포용적인 리더십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포용적 리더십은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기초가 되었다.

제 2 절 신약성서 속에 나타난 포용적 리더십

1. 예수님의 포용적 리더십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은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 모든 목회자 리더십의 원리이며 모델이자 기준이다. 또한 예수님의 리더십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섬김’이라는 말로 요약하시며 섬김을 위한 포용적 리더십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주시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 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막 10:35-45)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을 통한 포용의 리더십이었다. 이는 그의 영적 교훈과 사역, 그리고 대부분의 기적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수님의 희생적이고 포용적인 모습은 종, 목자, 그리고 청지기로서 사셨던 그의 모범적인 삶에 잘 나타나고 있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에서 절정을 이룬다. 예수님의 포용은 봉사와 겸손, 자기희생을 잘 나타내고 있다.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참된 리더십이란 사랑에 바탕을 둔 포용의 섬김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셨다. 목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죽음에 이를지라도 포용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포용은 개개인의 문제에 대한 예리한 관심뿐만 아니라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 사람들을 죽기까지 포용하고 섬기시었다.

사랑에 바탕을 둔 예수님의 포용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소외된 자, 병든 자, 마음에 상처 받은 자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올 수 있게 하였다. 영혼과 죄 가운데 고통 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관심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은 따랐다. 예수님의 포용은 사람을 변화시켜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고 경외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었다.

예수님이 보이신 자기희생은 자기 발전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한 포용의 희생은 하나님께로의 회복의 비결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지도자로 성숙되는 길이다. 리더로서의 성공과 승리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겸손하게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와 비례한다.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 자기 과신을 하지

알고, 자신이 죄인이고 무능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 겸손의 고백은 자신과 다른 이들을 포용해야 한다는 당위와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한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 최고의 지혜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생명,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우리를 섬기시고 포용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포용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고난을 빼앗으시고 복을 가져다 주셨다.

복음서의 증언을 토대로 포용적 리더십의 모델인 예수님의 리더십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적 인식 속에 널리 퍼져있던 “이웃”(neighbor)에 대한 개념을 끊임없이 확장하고자 하셨음을 알 수 있다.³⁵⁾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사상의 우월감과 율법주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은 단지 소수의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 주셨다. 예수님의 이웃의 개념 속에는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천시하던 사마리아인도 포함되어 있었고, 당시 유대사회 속에서 죄인으로 멀리 당하던 병들고 욕에 갇히고 가난하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서는 남성중심의 유대인 사회 속에서 가장 힘없고 소외된 자들이었던 과부들과 어린아이들까지도 품으셨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호칭을 붙여주시기까지 하셨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마10:13-16)

예수님은 그의 가르침들을 통해 포용의 목회를 몸소 실천하신 분이였다.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름으로 인한 차별, 그로 인한 갈등과 대립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당시 유대 사회의 모든 배타적인 관습들을 넘어, 병들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영혼들

35) Charles R. Foster, *Embracing Diversity: Leadership in Multicultural Congregation* (Washington, D.C.: The Alban Institute, 1997), 51.

을 사랑하시고 포용하시는 포용의 목회였던 것이다. 고침받은 문둥병자들의 이야기(마 8:2, 막 1:40, 눅 17:12), 삭개오의 이야기(눅 19:1-9), 등이 굶은 여인의 치유이야기(눅 13:10-17), 등은 사회적 신분이나 직업 혹은 몸의 질병 등으로 공동체에서 제외되고 죄인으로 천시되던 사람을 품으시고 회복시켜 다시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였던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그의 공생애를 통해 펼치셨던 포용목회는 당시 유대사회 속에서 이웃으로 여김 받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대한 포용적 시선에서 시작되었다. 여러 가지 기준들과 범규들로 인해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을 죄인 혹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라는 위치로부터 “이웃”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시고 회복시키셨다. 또한 그들을 자비와 동정을 베풀 대상으로 여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일꾼들로 인식하셨으며 그들을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목회 속에서 포용의 의미는 단순하게 돌봄(care)과 받아들임(acceptance)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고정관념과 관습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포용은 그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으로의 새 삶을 살게 하는 “Empowerment”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의 포용목회는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통해 뚜렷하게 드러난다.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직업도, 성격도, 신앙의 노선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 전혀 일치할 수 없는 다양함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고, 그들을 포용하시고 섬기시고 교육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는 일꾼들로 세우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포용목회의 참된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2. 바울의 포용적 리더십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이방인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일꾼이었음은 그의 사역을 통해 볼 수 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의 바울은 자신의 사회적, 학문적, 신앙적 배경과 지식만을 옹다고 여기며 그와 다른 사람들,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릇된 신앙을 가진 어리석은

사람들로 생각하여 박해하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심성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그가 박해하던 예수를 만나는 경험은 편협하고 배타적이었던 바울의 삶을 전적으로 변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다메섹에서의 회심 이후 바울은 박해자에서 복음의 전도자로 그 삶의 방향을 전환하였다. 그는 세 차례에 걸친 전도여행을 통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자매이며 한 지체에 속하였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바울의 유명한 가르침인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바울의 포용적 목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 3:28)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 뿐 이니라. (갈 5:6)

바울은 그의 가르침들을 통해 당시 유대인 기독교 커뮤니티의 가장 큰 쟁점 사안이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어떠한 다른 점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적인 계급이나 인종, 문화적 차이 그리고 성별의 차이 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을 받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모든 다양함을 가지고 한 지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바울은 모든 다름을 포용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를 보면 고린도교회에는 심한 분쟁이 있었다. 여러 파별로 갈린 고린도교회를 향해 바울은 포용의 가르침을 전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 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전 3:1-9)

바울의 포용적 리더십은 빌립보서 4장 2-9절에도 잘 나타나 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 4:2-9)

고린도교회의 두 지도자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게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성 지도자들이었다. 그러나 서로 다투고 분쟁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치성을 깨뜨리고 있는 존재들로 전락하고 말았다. 바울은 이들에게 서로 이질적인 성격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서로 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5절을 통해 관용의 정신으로 서로 포용하라고 권면하고, 빌립보서 4장 4절, 8절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으로 서로 포용하여 한 몸, 한 지체를 이루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목회서신인 에베소서 4장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엡 4:1-3)

바울은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지체들의 상호 의존성

(interdependence)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전 12:13, 14, 26, 27)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한다.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은 그의 포용목회가 단순히 서로 다른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에만 그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다른 요소들의 유기적인 결합과 상호관계의 증진을 통해 성장해 가는 것이 포용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보여준다. 한 몸을 이루는 여러 지체들의 상호 의존성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포용목회의 본질과 그 중요성, 그리고 지향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든 다양함 들을 포괄하는 바울의 포용적 리더십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지적하고 있는 포용하지 말아야 할 무리들에 대한 언급과 포용적 리더십의 한계에 대한 논의이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고전 5:7)

바울은 고린도교인들에게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고 말하고 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묵은 누룩” 즉, 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말하는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다. 이들은 바울이 그의 목회를 통해 실천하고 전했던 무조건적인 포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를 파괴하는 무리들인 것이다. 바울은 단호한 어조로 이들을 제외시킬 것을 말하고 있다. 이들이 악행을 일삼는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묵은 누룩”인 이상 그들은 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반드시 그 길을 돌이켜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새 삶으로 그 삶의 방향을 전적으로 전환(Metanoia) 해야 하며, 그럴 때 그들을 향한 포용의 역사는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바울의 언급은 포용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포용목회를 생각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부정의와 불평등의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묵인한 채 하나님의 정의를 가르치고 세우기보다는 불의와 타협하려는 교회와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경고인 것이다. 소외되고 힘없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소리를 외면한 채 겉으로 보이는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으로 포용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포용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말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적으로 완전하기를 바라고 종교적 교리만을 중시하면서 사람들의 삶의 현장과 문제들을 외면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지도자들에 대하여 준엄한 경고를 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화 있을찢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 23:27)

진정한 포용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포용목회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는 고통당하는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편에 서서 공동체의 정의와 평화를 세우는 일을 목회의 중요한 측면으로 이해하고 힘써야 한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조되는 교회 안에서 정의를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정의가 없는 사랑과 포용이란 결코 참된 것이라 말할 수 없다.

앞에서 포용적 리더십의 성경적 근거로서 여러 가지 예를 살펴보았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사랑으로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유대인들의 고정관념과 관습을 뛰어넘어 많은 이들을 품으신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포용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포용목회가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다.

제 3 절 포용의 신학 (Theology of Embrace): Miroslav Volf의 연구를 중심으로

Miroslav Volf의 신학적 논의는 동유럽 발칸반도의 인종적, 종교적 차이로 인한

분쟁과 갈등의 상황 속에서 시작된다.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간의 갈등과 반목은 두 민족 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갈등의 씨앗을 품고 남아 있다. 이러한 사회, 역사적 배경은 Volf의 신학적 체계를 정립하는 일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이며 “정의 (Justice)”, “용서(Forgiveness)” “포용(Embrace)” 등의 신학적 주제들을 다룬다. 그의 신학은 “포용의 신학” 이라고 불려진다. 그의 포용의 신학은 다름으로 인한 갈등과 반목, 그리고 이로 인한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 중요한 신학적인 논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인 이민교회의 대안적 리더십으로서 포용적 목회와 리더십을 살펴봄에 있어서 Volf의 포용적 신학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신학적 기반을 제공해 준다. 이 절에서는 포용의 신학에 대한 그의 신학적인 논의 가운데에서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 “포용의 드라마”(The Drama of Embrace)와 성공적인 포용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포용의 드라마 (The Drama of Embrace)³⁶⁾

Volf가 제시하고 있는 포용의 움직임은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타인을 향한 개방(opening the arms), 기다림(waiting), 두 팔로 포용(closing the arms), 그리고 다시 개방(opening them again).³⁷⁾ 포용의 사건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요소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순차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만일 어느 한 단계에서 멈추게 된다면 그것은 완전한 포용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왜곡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포용의 과정 속에서 위의 네 가지 요소들은 통합적인 포용의 움직임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들이다.³⁸⁾

가. 타인을 향한 개방 (Opening the arms)

팔을 벌린다는 것은 타인을 향해 다가가는 몸짓을 의미한다. 혼자만으로 만족하

36) Miroslav Volf, *Exclusion & Embrace: A Theological Exploration of Identity, Otherness, and Reconcili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140-145

37) Ibid., 141.

38) Ibid.

며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존재를 필요로 하고 그들이 내 존재의 일부분이 되기를 희망하는 것을 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내 안에 타인을 위한 공간(space)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³⁹⁾ 내 안에 타인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그들이 내 존재의 일부가 되기 위해 들어오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며 동시에 내 자신의 것으로 가득 찬(full of itself) 나의 자아를 비우고 덜어내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내 것만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는 타인을 받아들일 수도, 또는 타인을 향한 진정한 움직임을 이뤄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 단계 속에서 자아는 타인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며 타인을 향한 여정을 준비한다.⁴⁰⁾ 마지막으로 타인을 향해 팔을 벌린다는 것은 초대(invitation)를 의미한다. Volf는 이 단계에 대해 표현하기를 두드림이나 들어오기 위한 여러 가지 질문들은 필요치 않으며 다만 기다리고 있는 친구를 위해 열어놓은 문과 같이 타인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나. 기다림 (Waiting)

이 단계는 두 팔을 열어 타인에게 다가간 이후 타인과 접촉하기 전에 잠시 멈춤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다림은 나의 주도로 이루어진 타인을 향한 다가감이 포용을 이루는 모든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Volf는 포용의 움직임은 침해의 행동(an act of invasion)이거나 임시적이고 실험적인(tentative and exploratory)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⁴¹⁾ 자신 속에 타인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나의 테두리를 벗어나 타인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시점에서, 다른 말로 하자면 타인의 경계선(boundary)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타인이 자기 자신을 개방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 나의 개방과 포용의 의지를 인정하고 팔을 벌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이 기다림의 과정은 자칫 일방적인 한쪽의 행동으로 보여 질 수도 있다. 그러나 Volf는 이 기다림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이 기다림의 과정은 타인으로 하여금 나를 향해 움직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이다.⁴²⁾ 포용은 강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작해서 만들어 질 수 있

39) Miroslav Volf, *Exclusion & Embrace*, 141.

40) Ibid., 142.

41) Ibid.

42) Ibid., 143.

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림의 과정은 포용의 드라마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 기다림의 과정 때문은 포용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다른 형태의 붙잡음(holding)과 구별될 수 있다.

다. 두 팔로 포용(Closing the arms)

이 단계는 실제로 포용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여기서 말하는 포용은 상호성(reciprocity)을 기반으로 하는 포용을 말한다. 즉, 서로가 붙잡고 있으면서 동시에 서로에게 붙잡힌바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포용의 단계 안에서 서로 각각의 자아 속에 만들어진 타인을 위한 공간속으로 들어가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타인의 존재를 느끼게 된다. Volf는 이러한 상호성을 기반 하지 않고는 진정한 포용은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말한다.⁴³⁾ 상호성에 기반을 둔다는 것은 서로에게 한 가지 방식의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용의 목적은 무조건적으로 하나의 존재로 통합하려 함이거나 동일시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포용의 과정에서 자신의 영역과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키려는 노력은 포용의 과정에서 자아를 상실하고 수동적으로 통합되고 동일화 되는 위험을 막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포용의 과정 속에서 자아의 정체성은 타인의 영향 가운데서도 보존됨과 동시에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변화(transform)하는 것이다.

라. 다시 개방(Opening the Arms again)

포용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존재를 그들의 경계선을 밀착시킴으로 하나로 통합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Volf는 포용 속에서 서로 다른 두 존재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밀착된 서로의 경계선이 아니라 서로를 두르고 있는 두 팔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포용이 그 자체로 효력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그 둘러진 팔은 반드시 다시 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⁴⁴⁾ 포용의 끝은 이미 또 다른 포용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이다.⁴⁵⁾ 다른 말로 하자면 포용은 종결적(terminal)이 아니라 순환적(circular)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포용의 순환적인 속성 속에서 자아

43) Miroslav Volf, *Exclusion & Embrace*, 143.

44) Ibid., 144.

45) Ibid., 145.

와 타인의 행동과 그에 따른 반응들은 그 관계들 속에서 의미와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움직임이다.⁴⁶⁾

포용의 순환성에 대한 Volf의 지적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포용에 대한 이해를 가짐에 있어서 중요한 점을 시사해 준다. 포용에 대한 막연한 생각들은 포용을 일회적인 이벤트로 혹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치부해 버리는 잘못을 범하게 한다. 따라서 포용이 가지는 의미와 성격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접근과 연구는 이러한 과오를 극복하게 할 뿐 아니라, 오늘 우리 상황 속에서 포용을 바르고 효과적으로 활성화 시키고 실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2. 성공적인 포용을 이루어 내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들

Volf는 성공적인 포용의 네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들을 기술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정체성의 유동성 (the fluidity of identities)”이다.⁴⁷⁾ 사람들은 사회 공동체 속에서 저마다 다른 역할을 가지고 그 공동체의 원칙과 가치들을 배우며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다른 입장과 삶의 타인들을 항상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들은 서로 겹쳐지는(overlapping) 사회적 영역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다. Volf는 이를 인간의 주거지에 비유한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마치 집과 같이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지만 끊임없이 개선하고 재배치하며 새로운 것들을 들여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집은, 다시 말해 우리 자신과 공동체는, 절대 예전과 같을 수 없으며, 우리가 직면한 우리 “바깥”에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일부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으로 “관계의 비대칭화 (the nonsymmetry of the relationship)”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포용은 단순한 합체와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Volf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포용의 대상에 대해 한계를 두지 말 것을 강조한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 그리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자아를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이 포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들의 이웃이거나 친구들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원수들에게도 포용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우리가 포용을 이야기 할 때는 우리들의 정서상 받아들일 만한 것들과 사람들을 한정하는

46) Miroslav Volf, *Exclusion & Embrace*, 145.

47) Ibid.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들이 좋아하고 받아들일 만한 것들에 대해서만 포용의 여지를 두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Volf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져야 할 포용의 자세는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다른 타인들에게 포용의 손길을 뻗어야 하며 이러한 포용의 마음과 정신은 그들이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을 넘어 우리를 대적하고 해할 수 있는 무기를 들고 있을 지라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⁴⁸⁾ 이러한 포용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보여주는 포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은 “결과의 진행성(the underdetermination of the outcome)”이다. 포용의 드라마의 두 번째 단계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결과물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포용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타인이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지에 대하여 사전에 예측하거나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의도하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 같이 보여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비록 우리가 분명한 결과를 알 수는 없을 지라도 진정한 포용은 자아와 타인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마지막 특징으로는 “포용의 위험성(the risk of embrace)”를 들 수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포용의 범위를 내 주변의 이웃과 친구들, 그리고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에 한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까지 확장 할 때, 우리는 포용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 타인을 향한 우리의 행동은 때로 잘못 받아들여 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비쳐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우리의 포용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지고 지지받기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포용의 당사자나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고 오히려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Volf는 이 점을 언급하면서 포용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⁴⁹⁾ 예측가능하지 않으며 때로는 우리 자신을 희생자로까지 만들 수 있는 이 포용의 드라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경륜을 믿는 자

48) Miroslav Volf, *Exclusion & Embrace*, 146.

49) *Ibid.*, 147.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펼쳐지는 이 포용의 드라마에 적극적으로 동참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포용목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목회자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의 방법이다. 포용목회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가속화되고 있는 개인주의로 인해 누구에게도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지 못하고 용납 받지 못하는 이민의 삶 속에서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목회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포용목회와 포용적 리더십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기반을 정립하려는 노력들은 더욱 다양한 관점과 접근으로 보다 더 심도 있고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교회와 목회의 위기를 말하고 그 대안으로 소개된 수많은 목회 방법론들이 교회 안에서 효력을 가지고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려면 이러한 신학적 연구의 작업들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 논문을 통해 소개된 포용목회의 성서적 신학적 논의들이 앞으로 진행될 보다 진전된 신학적 작업들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필자가 20여 년 동안 목회하고 있는 세계비전교회의 이야기를 포용목회의 관점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세계비전교회의 목회에 대한 이야기들은 포용목회를 한인 이민교회에 적용하고자 노력하였던 목회적인 한 예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 5 장

포용목회의 한인이민교회에의 적용: 세계비전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이 장에서는 포용목회의 실제적 적용 사례로서 본인이 20여 년 동안 목회하고 있는 세계비전교회(구 벨리한인장로교회)의 목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세계비전교회의 위치와 정황, 역사와 성장을 기술했 후, 세계비전교회의 목회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 포용목회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용목회를 위한 평가와 제언으로 이 장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제 1 절 세계비전교회의 위치와 정황

세계비전교회는 Los Angeles 서북쪽에 있는 San Fernando Valley의 Porter Ranch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지금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며 새 삶의 터전에 새로운 희망을 품은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Porter Ranch에서 Porter는 교회의 문지기를 뜻하는 단어이다. 이 지역에는 세계비전교회 뿐만 아니라 미국 주류사회의 대표적인 교회 중의 하나인 Shepherd of Hills 교회도 세계비전교회 건너편에 자리 잡고 있다. Porter Ranch의 두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교회가 교회의 문지기들의 공동체로서 가까운 장소에 함께 자리 잡게 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문 앞에 서서 맞이하고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다.

세계비전교회는 15,000평 부지에 1,600석의 본당과 1,8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비전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비전센터는 친교를 나누는 장소 및 식당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농구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다.

제 2 절 세계비전교회의 역사와 성장

1. 태동기 (1987년 1월 - 1988년 3월)

필자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을 서원한 후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성한인교회에 강도사로 부임하여 사역을 시작하였다. 1985년에 목사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교회창립의 꿈을 키우게 되었다. 기도하는 중에 매일 새벽 기도하는 교회로 세울 것을 주님께 결단하였고, 주께서 인도하신 뜻 있는 25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1987년 9월 20일 첫 기도회를 가졌다. 10월 한 달 동안 교회 창립을 위한 릴레이 금식기도와 합동 기도회를 거쳐 본인을 포함한 7인의 운영위원회를 설립하였고, 1987년 11월 1일 나성한인교회의 지원에 힘입어 North Hollywood에 위치한 메시아 루터교회에서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기도가 영적 호흡인 동시에 교인들의 신앙성숙과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라는 인식 속에서 창립예배를 드리기 전인 1987년 9월 초부터 매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였다. 당시 벨리 전 지역의 교회들을 가운데 주말 새벽기도회를 가지는 교회들은 더러 있었지만 매일 새벽기도회를 하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던 상황이었다. 창립예배 때부터 교인들에게 새벽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며 주중에는 새벽 5시 50분, 주말인 토요일과 주일에는 6시 30분에 매일 새벽기도회를 열었다. 하지만 몇 주간이 지나도록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더러는 이민생활에서 주중 새벽기도회를 갖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대의사를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이란 사람의 의지와 열심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새벽기도회의 성령의 불꽃을 지피기 위해서 열심히 간구하였다. 그 결과로 2-3개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기도의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참석자들은 점점 늘어갔으며 혼자 시작했던 새벽기도회는 해가 거듭될수록 불길이 더 왕성해갔다. 오늘날까지 단 하루도 그 불씨가 꺼진 적이 없는, 실로 교회성장과 부흥의 주된 원동력이 되었다. 아울러 교회와 개인들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가정을 세움과 동시에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굳건히 하는 큰 초석이 되었다.

세계비전교회의 태동기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역시 기도를 통한 목회의 시작

과 성장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비록 작은 모임이었고, 모든 것이 시작되는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운동을 통한 협력과 연대 그리고 포용의 움직임들은 세계비전교회에서 앞으로 펼쳐질 포용목회의 씨앗이 싹트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정착기 (1988년 3월 - 1992년 10월)

25명 미만의 적은 성도들과 함께 시작한 교회는 1988년도를 거치면서 교회의 빠른 안정과 성장을 갈망하는 교인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점차 부흥되며 안정되어갔다. 첫해에 교인수가 6배 이상 증가하여 150여명이 되었다. 매일 드리는 새벽기도회를 위시하여 주일 아침 10시에 드리는 1부 예배, 11시에 본당에서 드리는 주일대예배, 오후 2시에 드리는 주일찬양예배에 이어 금요일 오후 8시에는 금요일예배와 예배 후 밤 10시부터 심야기도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들이 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속에 이루어져 갔다. 1988년에는 성도의 수가 200여명에 이르렀으며, 영어권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 영어예배를 창설하였다. 1992년도에는 교육부의 인원이 280여명으로 창립당시에 비해 15배가 증가하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다.⁵⁰⁾

교회의 성장과 발맞추어서 각 급 부서들의 활동과 사역의 범위도 확장되었다. 미자립교회 지원 사업, 멕시코의 선교지 방문, 교역자 세미나, 영성훈련, 장로 수련회와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식 등, 목회 전반에 걸쳐 활발한 움직임과 그에 따른 성장이 이루어진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다.

3. 성숙기 (1992년 11월 - 2002년 10월)

벨리한인장로교회가 첫 발을 내딛지 5년 후 작은 모임이었던 교회는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여러 사역의 장에서 믿음의 열매들을 거두기에 이르렀다. 외형적으로 재적교인이 1000명에 육박하는 교회로 성장하였으며, 신앙의 동역자들인 창립멤버들의 2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목사와 전도사로 하나님의 사역에 같이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교회 안팎으로 선교와 교육을 통해서 신앙의 내적인 성숙을 이루게 되었다. 또 이 시기에는 대내외적으로 불우한 교우들을 물질과 기도로 도우며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구제사역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썼다.

50) 이 시기에는 벨리 한인교회에서 벨리 한인 장로교회로 교회의 이름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또 다른 중요한 사안은 창립 이후부터 모든 교인들이 꿈꾸던 성전건축의 비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초를 다지고 그 틀을 잡아갔으며 현실화되었다는 것이다. 2001년에는 성전 건축 공사가 본격적인 궤도에 접어들게 되었다. Los Angeles 시의 공원부지였던 11에이커의 땅을 언덕을 1년여 간 깎아 평지를 만들고 땅을 다지고 배수로와 방벽을 세우는 기초공사가 진행되었다.

성전건축에 온 교우들을 참여키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성전건축 돕기 리사이클링(Recycling)이 2001년 연초부터 시작되었다. 신문지와 폐지, 캔, 유리병 등 각 성도들의 가정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모아두었다가 주일 한 곳에 모아 판매해 교회건축을 위한 재정에 보태는 이 캠페인은 금전적인 의미보다 온 성도들이 새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과 정성을 모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이렇게 성도들의 삶을 연결하는 행사들을 통하여 직책과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새 성전 건축이라는 원대한 계획 속에 의미 있는 하나의 지체로서 자리 잡을 수 있게 했던 것이다.

새 성전 건축은 계획대로 추진되었고 3월 26일 현지에서 본당 상량식을 감사에 배와 더불어 실시하였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성전건축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하심이 있음이라 믿으며 온 교우들은 합심하여 매일 밤 10시에 새 성전을 향해 무릎을 꿇고 씬 없이 기도하였다.

4. 제2 도약기 (2002년 11월 - 현재)

2003년에 새 성전에 입당하면서 교회의 공식적인 명칭을 세계비전교회로 변경하고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온 교우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과 교회의 문지기라는 겸손하지만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실천하고 있고 믿지 않는 많은 이민자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성전을 채우는 일에 열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많은 성도들이 20여 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었던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 등의 모임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열심과 정성을 다해 참여하고 기도하도록 격려하였다. 세계비전교회는 새 성전과 함께 벨리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교회의 테두리를 벗어난 곳에 있

는 이웃들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도움의 손길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역사에 동참하는 것과 동시에 한인 커뮤니티 안에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관으로서 교회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제 3 절 세계비전교회 안의 포용목회

이 절에서는 20여 년 동안 이루어왔던 세계비전교회의 목회 가운데서 포용목회의 사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한인 이민자들을 위한 포용목회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면서 개척 초기에서부터 실시한 프로그램들과 시기적 필요에 따라 구상하여 실시해 온 프로그램들 중에서 한인 이민교회 목회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을 선별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장로부부 세미나와 수련회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성장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과 문제점들이 여럿 있지만 가장 두드러지고 교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회 안의 갈등이다. 목회자와 장로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그 불화를 극복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어 법정싸움으로까지 옮겨가는 경우들이 종종 목격되고, 서로를 비방하는 투서와 신문지상의 기사들이 한인 이민교회 속에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목회자와 장로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대립, 불신과 분열들은 왜 일어나는 것인지 그 원인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본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당회와의 관계를 증진하고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포용목회의 방안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갈등의 원인으로는 성경적 장로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할 수 있겠다. 성서적으로 볼 때 장로의 기원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제안으로 모세의 재판권을 돕는 십부장, 오십부장, 백부장, 천부장을 임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백성들의 문제들을 재판하는 모세를 돕는 자들이었다. 출애굽기 17장과 18장에는 하나님의 기쁨부음 받은 종으로서의 모세와 그를 돕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아멜렉과 이스라

엘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이 과정에서 아론과 훌은 돌로 의자를 삼아 모세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며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올렸음을 볼 수 있다. 그들이 직접 손을 들어 군대를 지휘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도왔던 것이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장로의 직책은 목회자를 도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장로가 목회자를 대신하여 교회를 주장하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장로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린 행동이라 말 할 수 있다.

당회와의 갈등의 두 번째 원인으로서는 잘못된 교회의 주인의식을 들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경을 통하여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위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16:18)

교회를 세우신 이도 그리스도시요, 교회의 주인도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 속에서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망각하고 목회자와 장로들이 그 주인 됨을 놓고 다투고 갈등을 빚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설립하였으니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그릇된 주인의식이 가득 차이는데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특별히 목회자를 청빙해 온 당회원들이 그릇된 주인의식에 사로잡혀 목회자의 고유권한인 목회의 영역에 까지 간섭하며 당회원들의 지시에 따를 것을 강요하려 할 때 목회자와 당회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그릇된 주인의식은 한인 이민교회의 상황과 맞물리면서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전문적인 직업에 종사했을 지라도 그들의 경력과 직업이 이곳 미국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직업의 하향이동을 감수해야만 했던 대다수의 이민자들은 그들의 억눌리고 소외된 의지와 욕망을 한인 교회 안에서 지도력을 행사함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종종 그들의 억눌린 의식들은 필요 이상으로 지도력의 자리에 집착하게 만들고, 목회자의

목회를 간섭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이 말해주는 대로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도 장로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회의 주인의식을 바로세우는 일이 목회자와 당회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목회자의 지나친 권위의식도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교회의 설립자가 은퇴를 했거나 교회를 떠났을 때 새로 부임하는 목회자는 본인의 소신이나 목회의 비전을 밀고나가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전임목회자의 목회방향과 그 방법에 대해 알고 존중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자신의 소신을 펼쳐가야 한다. 하지만 빠른 시간 안에 눈에 보이는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조급한 마음과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 지나친 권위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대로만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경우가 많고, 결국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10년 20년 썩 그들의 삶을 바쳐서 헌신해 온 장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중요한 사안의 결정 등에서 소외시키려 할 때 목회자와 장로간의 대립과 반목은 심화되고 결국 분열로 이어지게 된다.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마리 양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목회자에게 주어진 리더십은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포용적인 사랑의 리더십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제기한 세 가지 원인들 이외에도 개 교회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갈등의 원인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목회자가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은 장로와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풀어가며, 건강한 리더십의 형태로 꾸려가는 것이 목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특별히 포용목회를 생각함에 있어서 본인이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고려했던 부분도 교회의 리더들인 장로들을 어떻게 포용하며 건강한 교회의 리더들로 자리 잡게 하느냐의 문제였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포용목회의 시작은 장로들을 포용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본 교회는 87년 11월 1일 창립한 이래로 지금까지 당회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교회의 리더들인 장로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하고 교육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매년 정기적으로 장로부부 세미나와 수련회를 갖는다. 장로부부 세미나는 일년에 두 차례 부부동반 만찬과 함께 개최하고 있다. 이 세미나를 통해 성공적인 목회의 경험을 가진 목사들을 강사로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서 어떻게 장로의 직분을 잘 수행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본 교회는 시무장로 15명, 원로, 휴무, 협동장로가 15명으로 합계 30명의 장로들이 목회의 일을 돕고 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장로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본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에서 임직 받은 장로님이 오실 경우 등록하고 6개월이 지나면 협동장로로 임명하며 시무장로와 같이 교회의 각종 예배의 기도 순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장로가 새로 등록하게 되면 격월로 갖는 정시당회와 임시당회 후에 함께 식사를 나누며 함께 친목을 도모하며 매년 개최되는 장로 세미나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당회의 갈등해소와 대화의 증진을 위한 장을 마련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매년 장로부부 세미나와 여행을 겸한 행사를 2박 3일 혹은 5박 6일의 일정으로 개최하고 있다. 훌륭한 강사들의 교육과 함께 지내는 시간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이는 당회원 모두에게 의미가 있고 기다려지는 행사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여행의 기간 동안 시간을 알차게 활용하기 위해서 강사 목사의 강의는 물론이고, 간증의 시간과 독서의 시간을 배정하고 독서 후 발표하는 시간을 주어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994년까지는 Los Angeles 근교에서만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나 95년부터는 그 장소의 선택이 다양해 졌다.⁵¹⁾

특히 96년 9월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가졌던 장로부부 세미나는 그 곳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하여 세 교회의 장로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토론토 빌라델비아교회(김경진 목사 시무), 토론토 열린문교회(이창익 목사 시무), 그리고 본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장로부부 세미나를 가졌다. 이러한 연합 장로세미나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고 또 다른 연합세미나의 출발이 되었다. 연합 장로세미나를 갖기를 원한 뉴욕중부교회(김재열 목사 시무) 장로부부 20여명과 함께, 나성 빌라델비아교회(조천일 목사 시무)와 본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97년 1월에 또 다시 연합 장로부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연합 장로부부 세미나의 성과는 계속 이어져 97년 9월에 캐나다 밴쿠버 중앙교회(박수준 목사 시무)와 또 한 번의 연합 장로부부 세미나를 갖게 되었다. 2006년에는 연합 장로부부 세미

51) 장로부부세미나의 개최 장소는 다음과 같다. 88년,89년은 피스모비치, 90년에는 샌디에고, 91년에는 밴추라비치, 92년에는 그랜드캐년, 93년에는 팜스프링스, 94년에는 피스모비치, 95년에는 하와이, 96년에는 캐나다 토론토, 97년에는 캐나다 밴쿠버.

나의 의미와 성과들이 인정받아 한국의 서현교회에서 30여명의 장로가 Los Angeles 에 와서 장로부부 세미나를 함께 하였고, 2007년에는 답방의 형식으로 본 교회의 장로부부들 31명이 한국을 방문하여 교류를 가지며 또 다른 배움의 기회를 가졌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목회사역을 이루기 위해 동과 서, 남과 북에서 교리와 교단을 초월하여 한 자리에 모여 장로부부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민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이민교회는 특성상 같은 교단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목회자의 출신 교단이나 신학교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기가 힘들다. 조금이라도 나와 다르면 구분 짓고 외면하고 무관심하며 심한 경우 정죄하는데 익숙한 것이 이제까지의 모습이었다. 이를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포용의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질 수 있었던 일이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던 연합 장로부부 세미나를 통하여 교역자들 간에는 목회에 대한 경험들과 자료들을 공유하며 서로 간에 우의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참석자들 모두에게는 의미 있는 배움과 교류 뿐 아니라 기도의 동지를 만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무엇보다도 각 교회 목사님의 목회철학을 발표하고 교회론에 입각한 각 교회의 목회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소개하는 시간은 교단과 교파를 넘어 폭넓은 신학을 접하는 귀하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또한 각 교회의 기둥으로서 세운 장로님들의 삶을 담은 믿음의 간증은 지역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지만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확인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

특히 한국교회 내에 팽배하게 자리 잡은 내 교회, 내 목사라는 과도한 자기중심적인 의식들이 보다 넓은 장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분식될 수 있었으며 폭넓은 안목과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교회 일치 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강단교류를 통해서 교단의 벽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한 힘을 모으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연합 장로 세미나를 통한 교류는 시대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의 리더들이 이러한 넓은 안목과 포용의 마음을 가질 때 한인 이민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당회와 그를 구성하는 교회의 리더인 장로와의 유기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포용목회의 실현이자 포용목회를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목회자와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내 자아가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온 힘과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목회자와 장로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과 포용의 도를 따라 서로 협력하고 감싸 앉는다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역사는 그러한 지도자들에게 약속된 것이라고 믿는다.

2. 선배 교역자들을 섬김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은퇴한 선임교역자와 후임목사 간의 좋지 못한 관계로 인한 분쟁이 교회의 분열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이 목격된다. 이는 후임목사가 인내하지 못하고 전임교역자를 섬기고 포용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세대가 다르고 목회철학이 다를 지라도 후임목회자는 전임교역자에 대하여 예우를 다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전임목회자와 후임목회자가 아름다운 관계설정의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교인들을 말이나 그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교육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며 그들도 웃어른들에 대해 존경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지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난 20여 년의 목회의 시간동안 본인이 깨닫게 된 목회자의 축복받는 비결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함을 통해 축복받을 수 있고, 둘째는 낳아주신 부모님의 축복을 받는 목회자는 축복받을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삶으로 후배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많은 선배목회자들의 축복을 받아야 그 목회가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배교역자들에 대한 예우와 섬김의 문제는 중요한 목회의 부분이며 포용목회의 실천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장으로 여기고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은퇴 교역자나 선배교역자들을 꺼려하고 부담으로 여기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그들은 또 다른 소외된 대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교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 증경 총회장이 세 분이 계셨었고 그 분들의 장례 및 추모예배를 드렸었다. 지금도 70세가 넘으신 모교단의 증경 총회장을 협동 목사로 모시고 있으며, 그 외에도 65세가 넘으신 두 분의 목사님들이 협동목사로 함께 사역하고 있다. 교회에서 장로 부부 세미나 및 수련회 등의 행사를 가질 때면 함께 참여하도록 하며 그 외의 교회의 사역들에

대해서도 늘 함께 의논하고 조언을 얻는 등 직, 간접적으로 목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러한 선배교역자에 대한 포용과 섬김을 우리교회의 테두리를 넘어서 지역사회로 까지 확대하고자 본 교회에서는 매년 은퇴한 선배목회자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가지고 있다. 벨리지역에 거주하시는 선배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1998년부터 해당 지역을 Los Angeles 지역 전체로 확장하여 여러 곳에 거주하고 계시는 은퇴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초청행사를 열고 있다. 행사 당일 차량을 지원하여 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각 부서에서 정성어린 준비로 선배 목사, 사모들을 맞이한다. 교육부에서는 선배목사, 사모들을 위한 특별 공연을 준비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며 여선교회에서는 정성어린 음식을 만들어 대접한다. 식사 후에는 여러 교인들의 협찬으로 마련한 여러 가지 선물들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며 선배교역자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지실 수 있도록 온 교회의 기관들이 다양한 모양으로 지원하며 참여한다. 행사의 규모도 점점 늘어나서 2006년에는 150여명의 선배교역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다.

이 행사는 단순히 나이 드신 어르신을 대접하는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 까지 선배 교역자들의 삶을 생각해 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포용과 섬김의 사역에 능동적으로 동참케 하는 포용목회의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3. 영어목회(English Ministry)창설, EM 비전새벽기도회

1987년 교회개혁 이 후 교인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영어권 성도들의 비중 또한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한인 1.5세와 2세들을 포용하는 영어예배가 1988년 신설되었다. 영어목회는 1988년 창설 이후 지금까지 꾸준한 활동과 성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대학 청년부 이상의 장년 50여명의 인원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한인 이민교회에서 세대 간의 격차와 그에 따른 갈등의 양상은 잘 알려져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1세대의 가치관에는 유교와 무교의 가치관이 깊이 깔려 있다. 특별히 유교의 영향으로 권위주의, 서열의식 등이 강하다. 1세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러한 자신들의 문화적 경험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신앙의 생활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2세

대들은 이를 이해하기 힘들어 하고 견뎌내지 못한다. 또한 교회의 정책결정의 구조가 주로 1세대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실제로 2세대들이 교회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2세대 목회자들이 한인 이민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을 기피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대 간의 격차와 가치관의 차이 등 다름의 문제를 인한 갈등과 분열을 그대로 방치하여 1세 한인 이민교회들이 한인 2세들을 포용하지 못한다면 한인 이민교회의 미래는 희망적이지 못할 것이다.

본 교회에서는 1988년 영어예배를 신설하면서 이들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우리의 후손들을 포용하며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들이 이어왔다. 그 결과로 서로를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있는 행사를 계획하였다. 한인 2세대들이 그들의 부모인 1세들의 신앙과 삶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한 결과 기도라고 결론지었다. 한인 1세대들이 교회를 삶의 터전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일구어 온 그 바탕에는 새벽기도회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2000년부터 특별 새벽기도회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름을 EM 비전열망새벽기도회로 하고 본 교회의 2세 영어권 중, 고, 대학생들에게 참여하도록 권유하였다. 새벽시간에 기도하러 나오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님에도 많은 수의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님과 함께 새벽기도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젊은이들이 뜨거운 찬양으로 하루를 열며 기도회에 동참함으로써 부모님들을 더욱 이해하게 되는 모습은 참으로 대견스러운 것이었다. 매년 18일 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 새벽기도회는 격일로 EM 참석자들을 예배의 위원으로 세우고 예배에 영어와 한국어를 함께 사용하며 진행하고 있다.

이 비전열망새벽기도회는 1세들의 신앙의 유산을 그들 신앙의 토대가 되는 새벽 기도회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며, 기도와 예배 가운데 세대 간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제공하여 주었다. 특별 새벽기도회의 마지막 날에는 가족단위로 손을 맞잡고 담임목사의 축복기도를 받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들의 2세대들에게 기도의 중요성과 의미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것이기도 한 1세들의 신앙의 유산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며 창조적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를 닦는 일이었다. 또한 1세대에게는 세대 간의

소통을 위해 다른 방법이 아닌 그들의 신앙의 가장 근본을 이루어 왔던 새벽기도회를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계기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그들의 자녀들을 포용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1세대의 부모들이 2세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보다 더 깊이 있게 그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2세대들의 교회 안팎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매년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수양회에 부모들이 함께 참여하여 2세대들의 영적인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를 마련하여 부모님을 초청,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세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신앙의 하나 되는 가정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

많은 수의 한인 이민교회들이 그들의 자녀들의 모임이기도 한 영어목회와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지 못한 채 행정적인 면에 있어서나, 재정적인 면에서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분 독립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독립적인 구조가 1세와 2세대 간에 갈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공동체 안에서 관계성이 결여된 독립이란 곧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독립이란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보다 관계가 보다 더 넓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하기에 세대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새로운 일들을 도모해가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동시에 그들의 삶과 신앙의 뿌리가 되는 1세 교회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 또한 그들의 신앙적, 민족적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세대 간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앞으로 더욱 많이 발전되고 만들어져야 하며 이는 한인 이민교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4. 레인보우 선교회

세계비전교회의 교우들은 그들의 연령과 거주 지역에 따라 목장에 가입하게 된다. 현재 21개의 목장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다시 이를 큰 단위로 묶는 9개의 공동체로 조직되어 있다. 이 21개의 목장 들은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다양한 필요와 요구를 작은 단위의 모임인 이 목장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이 21개의 목장 가운데 레

인보우 목장은 그 구성원에 있어서 다른 목장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레인보우 목장은 비한인 교우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결혼 한 커플들이 그 주요 구성원을 이루고 있다. 인원은 30여명 정도이며 한국, 중국, 일본, 히스패닉, 백인 등 인종적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레인보우 선교회의 창립은 교회 내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한인 이민교회가 이민사회 안에서 단순한 종교적 공동체를 넘어서 한인들을 위한 센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단일한,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특징들은 한국문화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유교사상과 단일 민족주의 그리고 혈연주의 등의 영향으로 더욱 그 성격이 공고해졌고, 그로 인해 국제결혼을 한 그룹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목회적 돌봄의 결핍으로 인해 이들 그룹은 한인이민교회 안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머무르거나, 아니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한인 이민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왔다. 그러나 한인 이민역사가 100년을 넘기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인 이민교회는 한인 이민자들의 다양한 삶의 형태를 받아들여야 하는 요청에 직면해 있다. 1세대와는 다르게 우리의 2세, 3세대들은 타인종 커뮤니티와의 다방면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삶의 모습들도 다양해 질 것이기 때문에 인종적으로 배타적인 성격을 고집하는 것은 한인이민교회가 스스로의 영역을 좁혀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인 이민교회는 다가올 다양한 변화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며 열린 마음과 시각으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교회에서는 국제결혼을 한 그룹들을 중심으로 레인보우 선교회를 창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레인보우 선교회의 창립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공동체 속에 한 기관으로 공적으로 구성함으로써 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돌봄의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더 이상 한인이민교회에서 주변인이 아니라 전체를 이루는 중요한 일부분임을 드러낸 것이다. 선교회의 창립 이후 선교회 회원들이 각종 모임들이나 행사들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다른 선교회의 회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어우러져 교회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선교회별 찬양대회와 모든 선교회가 함께 준비하

는 추수감사절 터키파티는 모두가 교회 안에서 하나임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계기들을 통해 한인 이민사회와 교회 속에 국제 결혼한 커플들에 대한 물이해와 편견들을 불식시킬 수 있었으며 비록 문화와 언어가 다르다 할지라도 함께 협력하고 어우러지는 모습들 속에서 타 인종 커뮤니티들과 연합하고 교류할 수 있는 한인 이민교회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고 하겠다.

5. 새 가족 환영회

새롭게 형성되는 커뮤니티인 Porter Ranch의 지역적 특징 때문에 세계비전교회에 등록하는 새 교우들은 대부분 새 삶의 터전으로 이주해온 경우가 많다. 이들은 처음 교회를 찾아온 새 신자들이 아니라 이미 신앙생활을 해 왔거나 교회경험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여 본 교회에서는 새로 등록한 교인들을 새 신자가 아닌 새 가족이라고 칭하고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교역자 4명이 새 가족을 위한 성경공부를 진행하고 있고 일 년에 한 번 전체 교우들과 함께 새 가족 환영회를 가져서 이제 한 가족이 된 것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기회를 삼는다.

교회가 성장해 갈수록 기존 교인들과 새로 오는 교인들의 융화와 연합은 중요한 목회적인 사안으로 떠오르게 된다. 교인수의 증가에 따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기보다는 희망적으로 그 변화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며, 그 가운데에서 기존의 교인들과 새로운 가족들이 각각 그 변화를 주도해 가는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할과 임무를 적절히 배분하여 주는 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 목회자에게는 포용하는 목회적 마인드가 필요한 것이다. 구성원들의 다양한 달란트들이 효과적으로 교회의 성장과 성숙에 쓰일 수 있도록 그에 알맞은 다양한 사역들을 개발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그들이 제 각각의 개성대로 풀어지지 않도록 하나로 묶어주는 일 또한 목회자의 임무이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사역은 결국 불만을 낳고 갈등의 원인이 되기 쉽다. 목회자가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를 하나로 묶는 포용목회적 마인드를 가질 때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다.

제 4 절 포용목회에 대한 평가와 제언

지난 20여년의 목회경험을 통해 깨닫고 배운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는 포용목회라는 것이다. 특별히 모든 것이 개인주의화 되고 개별화되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갈라지고 상처 나고 분열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싸매고 포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절실한 깨달음이 있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들이고 아무리 완전해 지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어딘가에는 부족한 점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그 부족함들 때문에 실수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늘 넘어지기 쉬우며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그 실수와 실패로 인해 정죄하고 멀리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구원과 안식을 경험해 보지도 못한 채 소외되고 마는 것이다. 부족한 가운데에서 두 팔로 끌어안고 포용하는 것, 그것이 포용목회의 시작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부족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포용목회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사람은 부족할 지라도 서로 포용하는 가운데 섬김을 실천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성숙해 질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따라서 목회자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끌어안는 포용목회의 실천가이어야 한다.

이러한 포용목회의 필요성과 그 의미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에서 좀 더 다양한 포용목회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신학적으로 포용목회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신학적인 작업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방법론적인 연구들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의 포용목회의 모델들이 한인 이민교회들 속에서 발견되어지길 희망한다.

1. 포용목회의 발전적 성장을 위한 계획과 제언

세계비전교회는 지금까지의 포용목회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 더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한 단계 성숙한 포용목회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세우고 있다. 지금까지의 노력들이 포용의 주제를 목회에 접목시키는 기초적인 것이었다면 앞으로의 작업들은 그 바탕 위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틀을 잡아가는 일이 될 것이다.

그 첫 번째 작업으로 포용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포용목회의 신학적 기반으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Miroslav

Volf의 신학적 연구들을 어떻게 교육프로그램화 하여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포용의 드라마'를 중심으로 포용의 실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체계화하는 일이 중심이 될 것이다.

Miroslav Volf의 '포용의 드라마'를 모든 교육 프로그램과 소그룹 운영의 기초와 정신으로 삼아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과 소그룹 운영의 지침으로 정립하여 목회의 전 역영에서 포용의 신학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적용되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포용의 구체적인 단계에 대한 교육은 세계비전교회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중점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프로그램인 장로부부 세미나 뿐 아니라 각 교육부서의 커리큘럼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교회의 전체적인 교육의 프로그램에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진행되어왔던 산발적인 스포츠 모임활동을 재조정하여 정기적으로 활동을 갖는 스포츠 소그룹으로 정착·발전시켜 보다 다양한 소그룹을 개설하고 참여를 독려하여 포용의 드라마에 있어 첫 단계인 타인을 향한 개방의 기회를 제공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앞에서 제시한 것 이외에 앞으로 세계비전교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몇 가지 프로그램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가. 교역자 수련회

기존의 교회행정 위주로 진행해 오던 교역자 모임을 수련회로 전환하여 영적인 재충전과 함께 쉼과 안식을 제공하는 화합의 장으로 활용할 것이다. 분주한 사역의 일정으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돌봄이 부족한 현실적 상황에서 교역자들의 화합과 보다 깊이 있는 친교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교역자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게 자리잡을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1세 목회자와 2세 목회자 사이의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관계적 문제를 극복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다름이 서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 다양성으로 인정하여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교회의 안정과 성장에 있어서 교역자들이 서로 화합하는 것은 당회와 목회자가 하나 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필수요소이다. 왜냐하면 교역자는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상관없이 교역자라는 것

만으로도 교회 안에서 리더십과 영향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담임목사의 목회철학과 방침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포용적 목회라는 것이 어떠한 행정적 절차나 형식으로 되어 질 수 없는 것이기에 포용적 목회의 시작은 한 교회를 섬기며 동역하는 교역자들 안에서 먼저 실천되고 열매를 맺게 될 때 비로소 목회의 전 영역에서 적용되어 지고 실행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나. 둘이 하나 되기(부부관계 세미나)

이혼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있어 이혼은 머나먼 이야기 아닌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다. 이민사회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가장 큰 위기 중에는 하나는 부부간의 갈등으로 야기되는 이혼문제로 인한 가정의 위기이다. 매일 서로 얼굴을 맞대고 생활하지만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서로 지치고 힘든 상황에 있기에 서로에 대한 배려나 관심은 소홀해지고 눈앞에 닥친 현실에 문제에 급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통적인 한국의 가정은 남자는 일하고 여자는 가정을 꾸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민생활에 있어서, 특히 이민 1세대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에서는 그러한 삶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어느 누구 여유를 가질 현실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그러하기에 작은 불씨가 키워져 큰 불로 번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부간의 갈등은 가정의 위기로 확대되어지고 있다. 한인가정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한인사회에서는 가정폭력 문제 대신 부부·가족갈등이 가장 많은 상담 건수를 차지하는 가족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지난 2003년 9.2%(184건)를 차지했던 부부·가족갈등에 관한 상담은 2004년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전체 상담의 15.5%(337건)를 차지, 가정폭력을 제치고 상담 동기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6년의 경우 부부·가족갈등은 20.2%(661건)로 2년 새 5%나 증가했다. 2007년 1-4분기 통계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갈등은 전체 23.4% 차지 할 정도 부부갈등으로 인한 가정의 위기는 심각한 상황이다.⁵²⁾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가정 또한 예외의 상황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부부갈등으로 인해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고 포용해야 할 의무가 교회에 있다. 예수님께서 가정을 세

52) 김동희, “흔들리는 부부관계,” 한국일보 미주판, 2007년 5월 24일자.

우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 하시고 치유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가정을 세우고 부부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 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들이 하나 되기 부부관계 세미나는 부부간의 갈등의 요소를 진단하고, 성경의 말씀의 근거하여 어떻게 서로가 갈등의 문제를 극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함께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부부관계에서의 포용의 경험은 가정 안에서 자녀와의 관계로 확산되어 또 하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세미나의 준비 및 진행을 목회자가 전담하기 때문에 세미나를 수료한 부부관계에 있어서 목회자가 비중 있는 증재자로 서게 될 것을 기대해 본다.

다. 자녀와 함께 역사 배우기

성장과정에 있어서 이민 2세대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이민 2세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혼란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자기 정체성의 혼란은 자연스럽게 1세대인 부모와의 갈등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신앙이 우선되어야 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신앙적 훈련과 더불어 1세대 부모와 2세대 자녀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이민의 역사를 배우고 연구함을 통하여 가족을 넘어 민족이라는 보다 더 확장된 자아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사를 통한 1세대 부모들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새롭게 배움으로서 2세대들은 부모들의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종교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부모들의 외적인 모습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적인 부분을 안다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표면적인 이해의 한계를 넘어 보다 깊이 있는 신뢰관계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부모와의 갈등의 요소를 해소하게 될 것이고, 부모의 삶과 신앙이 존중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의 문화와 역사에 익숙한 자녀들과 우리의 역사를 배움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두 문화와 역사의 차이를 인식하게 될 것이기에 1세대 부모가 2세대 자녀를 이해하는 실제적인 경험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 새로운 삶의 시작(결혼예비학교)

결혼식은 한두 시간 남짓이지만, 결혼 생활은 평생이다. 배우자 간의 정신적인 교류는 가장 공들여 준비해야 할 결혼의 필수 요소이다. 이런 의미로 결혼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장애물을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주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 결혼 예비학교이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서약하고 함께 결혼한 젊은이들이 결혼 후 서로 다른 가치관을 포용하지 못해 힘들어 하고 종국에는 이혼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목회자로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결혼 예비학교에서는 결혼에 대한 가장 실제적인 내용을 다름으로서, 앞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출발을 이룰 부부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예를 들면 결혼 예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남녀 차이와 대화 기법 등을 알려줌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원인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Miroslav Volf의 '포용의 드라마' 관점을 견지하고 부부간의 '갈등'의 원인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참가자들은 신앙적으로 부부관계와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성경적 모델을 제시 받게 됨으로 막연하고 추상적인 결혼생활의 허상을 벗고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결혼생활을 준비해 나가는데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통해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신앙의 축복이 유전되어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마. 음식을 통한 문화나누기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보다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음식을 통한 문화나누기의 주된 목적은 레인보우 선교회를 통해서 정착한 비한인 성도들과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한인 성도들이 서로 각 나라의 음식을 나눔으로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보다 깊이 배려하며, 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각자 자신이 속한 나라의 전통음식을 소개하는 것 뿐 아니라 직접 그 음식을 만들어 봄으로써 자연스럽게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는 포용적 관계 형성에 있어서 기다림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바. 부모님 감사의 밤

본 교회에서는 일 년에 한 번씩 Valentine's Day를 기점으로 중고등부 한인 2세대들이 부모들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밤을 진행하고 있다.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들에게 직접 만든 초청장을 우편을 통해 발송하고, 모임에 관련된 모든 것을 직접 준비하고 진행한다. 테이블 세팅에서 부터 저녁 메뉴를 준비하고 서브하는 것 까지 모든 것을 직접 준비하고 제공한다. 또한 가족별로 배정된 테이블에서 온 가족이 식사를 나눈 후, 각 연령별로 준비한 공연을 함께 보며 웃음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한인 2세인 자녀들이 부모님의 발을 씻겨주는 닭아 주는 세족식을 시작으로 하여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는 기도회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모든 모임의 순서를 마치게 된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작은 몸짓이지만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나누는 시간은 부모와 자녀사이에 보이지 않는 모든 벽을 초월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는 소중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사랑의 경험들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장으로 부모와 자녀들을 인도 할 것이다.

사. 자녀 교육 세미나

한국 부모만큼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들은 드물 것이다. 부모는 고생하고 힘든 시간을 보낼 지라도 자신의 자녀들만큼은 훌륭한 교육 속에서 잘 되어 주길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다. 특히 이민 1세대의 삶을 사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의 교육은 자신들의 신분 상승을 위한 하나의 사다리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문제만큼은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감당하고자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새로운 삶의 터전 위에서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없이 분주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부모의 권위가 박탈된, 가정교육 부재라는 현실 속에 놓여 있다. 이것은 특히 언어의 장벽을 가지고 있는 1세대 부모와 2세대 자녀들 간에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고단한 매일의 삶속에서 오는 부모들의 부부갈등은 자녀들의 인격형성과 정서적인 안정에 있어 부정적인 역할

을 한다. 이러한 역기능적인 상황에서 올바른 자녀교육을 이루기란 결코 쉬운 문제 아니다. 자녀 교육 세미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부모들에게 성경적인 자녀교육의 모델을 제시하고, 부모로서 역할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켜 자녀들과 새로운 관계형성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가정교육의 중요성과 부모의 교육적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신명기 6:4-9절은 그 대표적인 말씀 중 하나로, 먼저 부모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함은 물론, 자녀들에게 부지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교육에 전념할 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과 간절한 소원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있다. 따라서 성경적 자녀교육은 부모의 선택 사항이 아닌, 부모 된 자 모두의 의무와 책임이며, 부모자신의 인생(人生)의 필수 사역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Volf의 포용원리인 타인을 향한 개방(opening the arms), 기다림(waiting), 두 팔로 포용하기(closing the arms), 그리고 다시 개방하기(opening them again) 자연스럽게 적용되어 질 것이라 확신한다.

2. 포용목회를 이루고자 하는 목회자를 위한 제언

지난 20여년의 시간들 속에서 포용의 목회를 실천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도 있어왔다. 돌이켜 보면 포용목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외부적인 문제들에서 오는 어려움이라기보다는 한 인간인 목회자로서 느끼는 어려움들이 더 많았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운데 그 많은 과정들을 거쳐 오면서 포용목회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함에 있어서 포용목회를 실행하고자 하는 목회자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네 가지 근본적인 원칙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필자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그리스도의 섬김의 도, 부르심, 그리고 기도를 포용목회를 위해 목회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 네 가지 원칙들은 본인이 세계비전교회에서 포용목회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의 원천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 하나님의 사랑(Love of God)

포용목회의 가장 근본이요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구약의 수많은 증

언들이 보여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넓은 사랑으로 부족함이 많은 죄인들을 포용하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는 도구로 변화시키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5:8)

또한 죄를 범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 까지 하신 그 사랑이 바로 포용목회의 근본이다. 포용목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답아가는 것이며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요한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남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4:7-11)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전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던가를 기억할 때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인간적인 의미에서 누군가를 포용한다는 것은 언제나 한계를 가지며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사람과 사물을 바라보고자 노력하며, 그 사랑을 가지고 포용한다면 그러한 포용은 사람과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포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포용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머물러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나. 예수님의 섬김의 도(Stewardship of Christ)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의 탄생에 과정 자체가 곧 낮아짐의 섬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소외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셨으며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또한 선생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시며 섬김의 도를 몸소 보여주셨던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예수님을 폄박하고 조롱하고 못 박는 자들까지도 포용하시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포용의 정신은 포용목회의 중요한 근간을 이룬다.

포용목회를 실천하는 목회자들의 목회의 모델은 예수님의 사역임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은 왕, 통치자로 군림하시지 않았다. 오히려 섬기는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 목회자들은 때때로 믿었던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 줄 만큼 사랑하고 돌보던 교인들에게 오히려 배신을 경험하기도 한다. 목회자라는 것 때문에 이용당하며 오히려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때도 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란 결코 낭만적이거나 성공의 길만은 아닌 것이다. 더욱이 갈라지고 상처 난 것을 포용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은 그들 스스로 찢리고 상처 남을 경험해야 하는 경우들이 수 없이 많이 있다. 이럴 때 목회자들에게 따라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임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배신하고 돌아섰지만, 심지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다짐하던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자신의 부인하며 당신의 곁을 떠나갔지만, 다시 제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포용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귀한 사역을 맡기시는 것을 본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요 21:1-5)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21:15-18)

이러한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용납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포용이 종국에는 베드로를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로, 순교자로 변화시켰던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보게 된다.

포용목회는 작게는 목회자의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겠다. 목회자가 예수님의 섬김과 포용의 삶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며 성도들을 섬기며 끌어안을 때 헨리 나우웬의 표현대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 부르심 (Calling)

오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부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대한 고백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신앙적 동기를 부여해 준다. 이것은 평신도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목회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부름 받은 자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벧전4:2)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삶의 방향은 세상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좇아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의 풍습이나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양들을 맡기시고 먹이고 돌보게 하셨다.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격과 확신은 포용목회를 이루어 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겠다. 포용목회를 실천해 가는데 있어서 목회자는 종종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다. 인간적인 관계들 속에서 상처받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게 될 때 목회자를 지탱시키는 것은 인간적인 다른 어떤 지원이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를 통한 소명에 대한 확신과 감사다. 목회자로서 자기 자신의 사역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명의식은 포용목회를 펼쳐 가는 목회자들에게 요구되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과 목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임을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소명 받은 목회자가 지녀야 할 목회철학이며 포용목회의 위기들을 극복해 가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다.

사도 바울은 모든 부름 받은 사명자에게 부름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권면하면서, 부름 받은 자들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져야 할 신앙적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엡 4:1-3)

이것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돌보며 양육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이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말씀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결단과 자세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용납함과 평안은 주의 사역을 위해 부름 받은 자에게 있어서 선택의 요소가 아닌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믿음의 자세이다.

라. 기도 (Praying)

포용은 인간적인 능력이나 재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회적으로 혹은 스스로 판단해서 포용 가능한 부류의 사람들만 포용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포용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포용목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영적인 훈련이 요구되는 일인 것이다. 매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영적인 훈련과 하나님을 통해 공급받는 능력을 가지고 실천해 가야 하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공급받게 하는 영적인 수단이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점검받게 되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다시금 확인하고 결단하게 되며, 다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만 불완전한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길 원하신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13:34)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온전히 용납하고 포용한다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라 할 수 있다.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공급받는 힘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 기도는 연약한 나와 전능한 하나님을 연결하는 도구이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반대할 뿐 아니라 나와 원수 된 자도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공급받게 된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자들을 용납하고 포용하며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행7:60)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사랑의 근원은 기도에 있었다. 스테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때 그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랑을 이룰 수 있었다.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예수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인성이라는 한계를 동시에 지니셨기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겿세마네이라 곳에 올라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마26:36이하).

기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 순종할 수 있다.

기도는 단순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종교적인 형식이 아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공급한다. 그러하기에 항상 낮은 자의 자세로 모든 성도를 섬기고, 어떤 경우라도 모든 것을 용납하고 포용하는 자세로 세상 앞에 서야만 하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완전히 못 박을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용납하는 일이란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하기에 사도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15:31)고 고백한다.

본인이 20여 년의 목회 속에서 포용의 목회라는 목회철학을 견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창립예배를 드리기 전인 1987년 9월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드렸던 새벽제단의 기도를 통해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인의 목회경험 속에서 기도는 포용목회를 가능케 하는 힘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매일 매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겸손하고 진지한 영적인 훈련에 힘을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포용목회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제 6 장 결 론

한인 이민교회는 인종적, 문화적으로 단일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그 내부를 보면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 생겨난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민시기에 따른 이민교회 구성원들 간의 사회, 문화적 차이,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삶의 격차, 세대 간의 격차, 성별의 차이, 그리고 신앙적인 노선의 차이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내적 다양성을 화합하지 못하고 대립하고 분열하는 상황이 오늘 이민교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이민교회 상황의 대안으로 포용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포용목회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포용적 목회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목회적 리더십의 유형으로 이민 교회 내에 적용되고 있는 다른 리더십의 유형과 함께 포용적 리더십을 Cell 목회와 연관성을 가지고 살펴보았다. 포용목회의 성경적 기초에 대한 논의를 신, 구약 성서 속에 나타난 증언들을 토대로 기술하였고, 포용목회의 신학적 근거를 논의함에 있어서 “포용의 신학(The Theology of Embrace)”을 제기하고 있는 Miroslav Volf의 신학적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포용목회의 구체적인 적용의 사례로 본인이 20여 년 동안 목회하고 있는 세계비전교회에 대하여 기술하며 세계비전교회의 포용목회의 사례가 될 수 있는 다섯 가지 목회적 프로그램들을 소개하였다. 한인 이민교회가 격고 있는 교회 갈등과 분열의 원인 중에 하나인 장로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실행해 오고 있는 장로부부 세미나와 수련회를 소개하였고, 선배교역자에 대한 포용과 섬김의 필요성으로 시작된 선배교역자를 위한 위로회, 그리고 국제결혼 한 그룹들을 포용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우기 위해 조직된 레인보우 선교회, 1.5세와 2세로 구성된 영어목회 그룹과, 1세들을 연결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비전열망 새

벽기도회,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구성된 새 가족환영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포용목회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포용의 신학적 논의에 근거한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와 포용의 증진을 위한 fellowship, 토론회 등은 앞으로 포용목회를 성장, 성숙시킬 방안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것이다. 또한 세계비전교회에서 앞으로 진행할 몇 가지 프로그램을 제시해 보았고, 포용의 실제적 경험과 훈련으로 다양한 소그룹 활동의 활성화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포용목회를 실천하려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그리스도의 섬김의 도, 부르심, 그리고 기도가 포용목회를 이루고자하는 목회자들에게 근간을 이루는 것임을 제안하였다.

지난 20여년의 목회의 과정 속에서 고민하고 시도, 개발하였던 포용목회적인 아이디어와 프로그램들은 이민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공동체 속에 존재하는 다름이 아닌 다양성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우고 다름을 인정하며 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들이었다. 분열과 대립이 아닌 이해와 포용으로 변화하는 모습은 한인 이민교회의 미래에 포용적 목회가 가져다 줄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었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포용적 마인드의 목회와 리더십은 오늘날 변화하는 시대의 새로운 목회와 리더십을 요청받고 있는 한인 이민교회에 적용 가능한 효과적인 대안이다. 모든 이민자들은 조국을 떠나 먼 이국땅에서 살아가면서 외로움, 소외감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소수민족으로서 미국사회에서 문화의 차이, 언어의 다름, 신분의 불안정함, 사회적 소외감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이민자들을 감싸 안고 위로하며 새 삶의 힘을 불어넣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대립과 분열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 다름을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넘어서 포용하고 새로운 에너지로 바꾸어 내는 것, 즉 포용목회야말로 오늘날 한인 이민교회 속에 뿌리내려야 할 목회적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포용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포용목회에 대한 필요성과 그 의미에 대하여 함께 공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목회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질 때 포용목회라는 목회적 틀은 더욱 든든하게 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포용적인 리더십과 목회적 실천들이 한인 이민교회 안에 이루어져 간다면 한인 이민교회와 이민사회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서 보다 건강하고 유기적으

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참고 문헌

1. 국내서적

- 김제호.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미주 한인 이민교회: 회고와 전망." 김찬희 편. *미주한인감리교회 백년사 제2권*. Upland, CA: 미주 한인감리교회 백주년 출판위원회, 2003, 527-37.
- 김동희. "흔들리는 부부관계." *한국일보* 미주판, 2007년 5월 24일자
- 민병감. *미국속의 한국인*. 서울: 유림문화사, 1991
- 박영철. *صل교학론*. 서울: 요단, 2004
- 박종호. "이민 교회의 구조 혁신과 리더십." *목회와 신학* 2005년 7월호, 세계비전교회 편찬위원회. *세계비전교회 15년사*, 2003.
- 우형건. "미주한인교회 74%, 100이하 교인." *크리스찬 투데이*, 2008년 5월 14일.
- 유의영. "21세기 한인교회의 전망." D.Min 강의안.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pring, 2001
-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 1999.

2. 번역서적

- Jones, Laurie B. *예수의 오매가 리더십*. 송경근·김홍섭 역. 서울: 한국언론자료간행회, 1995

3. 외국서적

- Anderson, Leith. *Leadership that Works: Hope and Direction for Church and Parachurch Leaders in Today's complex World*. Minneapolis: Bethany House, 1999.
- Cordle, Steve. *The Church in Many Houses: Reaching Your Community Through Cell-Based Ministry*. Nashville: Abingdon Press, 2005.
- Chung, T. S. *Roots and Assimilation*. Elking Park: The Phillip Jaisohn Memorial Foundation Inc, 1981.

- Clinton, J. Robert. *The Making of Leader: Recognizing the Lessons and stages of Leadership Development*. Colorado Springs: Navpress, 1988.
- Hurh, Won Moo and Kwnag Chung Kim. *Korean Immigrants in America: A Structural Analysis of Ethnic Confinement and Adhesive Adaptation*. Cranbury, NJ: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Press, 1984.
- Hurh, Won Moo. *The Korean Americans*. Westport, CT: Greenwood Press, 1998.
- Tseng, Timothy. *Asian American Religious Leadership Today: A Preliminary Inquiry*. Durham, N.C.: Duke Divinity School, 2005.

Vita of
Jae Youn Kim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World Vision Church

Personal Data:

Birthdate: June 2, 1946
 Marital Status: Married
 Home Address: 9913 Tunney Avenue, Northridge, CA 91324
 Phone: 818-772-8446, 818-363-5887
 Denomination: Korean Evangelical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Ordained: 1985

Education:

B. A. Business Management and Chemistry,
 Dankook University, Korea, 1969.
 M.Div.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Los
 Angeles, 1985.
 D.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08.

Ministry Experience:

1987 to present Senior Pastor of World Vision Church,
 Northridge, CA
 1984 to 1987 Assistant Pastor of Los Angeles Korean
 Christian Presbyterian Church, Los Angeles,
 CA